



치의신보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dailydental.co.kr

제2760호 |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대형치과도 동네치과도 이력서가 사라진다

창간 **53**년 감히 구인난, 활로를 찾아라

사람을 구하는 건 하늘이 열린 이래 늘 중요한 관심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개원 치과의사들의 '민원 1순위'는 단연컨대 보조인력 구인난이다.

시대를 역주행하는 구인난을 향한 개원가의 문제 인식은 그저 '좋은 직원이 없다'에서 '직원이 없다'를 거쳐 이제 '이력서가 없다'로 냉소와 한숨이 교차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동네 치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푸념마저 나오는 건 최근의 구인난이 단순한 종사 인력간 불균형을 넘어 치과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 인식, 제도의 변화가 반영된 총체적 난국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18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활동 치과의사 수는 2만5300명으로 2016년 대비 1150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면허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2009년 52.5%에서 2017년 47.0%로 5.5%p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는 이미 수년째 지속된 구인난이 통계에 순차 반영된 것으로 치과계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보조 인력의 공급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역설적 프레임이 갈수록 고착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구인난을 둘러싼 두 주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이 같은 현상이 정상적

“
구인난은
사회구조
국민인식
제도변화가 큰 이유
”

이지 않다는 데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지만, 그 원인과 해법을 다루는 각론에 들어서면 각자의 셈법이 여지없이 틀어진다.

#임금은 '상수' 복지 조건은 '변수'

인식의 차이는 분명했다. 창간 53주년을 맞아 본지가 실시한 특집 기획 설문조사에 응한 300명의 치과의사와 300명의 예비 치과위생사는 구인난의 해법, 임금 수준, 근속연수 등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임금'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첫손에 꼽은 구인난의 '상수'였지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에 들어서면 각자 선호하는 임금의 범위와 수준이 엇갈렸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정월 확대나 경



“그래요, 우리 내일 또 웃어 봅시다” 우리의 치과에서 우리가 만난 인연은 소중한 겁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다를 을 하루에 수십 차례 겪어 내면서도 구차할 뜻이 없는 우리의 만남은 내내 간절했습니다. 구인과 구직, 씨줄과 날줄이 엮어 낸 그 인연의 가치를 지어다가 우리 서로 몇 년을 잘 지냈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자리를 비울 때가 언젠가 오겠지만 첫 날, 첫 진료 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경으로 등가 치환한 어느 환자의 미소를 머릿도, 가슴도 이내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대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같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요, 우리 내일 또 봅시다” (사진협조: 모두애프터치과)

력단절여성 활용 등 정책적인 해결책 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반 해 예비 치과위생사들은 급여 인상이 나 복지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책에 방

점을 찍어 큰 차이를 드러냈다. (3면에 계속)

창간기획 1, 3, 12~23면

44년! - 정직한 회사
CE SGS CE KOSF Certified Company

안/전/성

- 체임버 내부에 히터가 없는 멸균기!

추/적/성

- 11년 이상 멸균기록을 저장, 출력 가능한 멸균기!

SINCE 1975
한신메디칼주식회사
www.hanshinmed.co.kr

영업부 직통
(032) 500-8846

대 전 : (042)623-4483
대 구 : (053)742-1016
부 산 : (051)583-4528

경 남 : (055)331-4315
전 북 : (063)905-4263
광 주 : (062)572-9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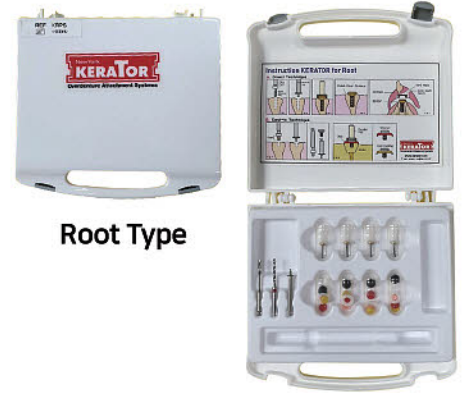
원 주 : (033)764-7644
제 주 : (064)713-6735
종 로 : (02)2277-8670



★ **우수한 의료제품** 이란?
반드시 필수적인 10년 이상의 오랜 임상결과를 토대로 환자와 정성을 다한 술자, 모든 분들께 만족과 신뢰감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NewYork KERATOR

Overdenture Attachment Systems



Root Type



Implant Type



Root Type



Bar Type

케라토는 **최초로** 강한 유착력이 아닌, Micro-Movement만을 허용하는 특수CAP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국내 유일의 16년 이상의 임상자료와 long-term data를 가진 KERATOR는 국내 치과 의사분들의 **Attachment 최고 선호제품**임에 감사드립니다.



※극소수량의 판매로 임상자료도 없는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ow something small, can make such a big difference!!



(주)대광I.D.M 02)3783-7041~3, 010-5222-9419

www.KERATOR.com 친절한 방문상담(실습 가능)

NAVER 케라토 검색 ※검색창에 케라토를 쳐보세요! 주문이 간편해집니다!

지역 대리점 대구 대리점 한양치재 053-654-2704 • 광주/호남 특약점 덴탈하우스 010-6379-6423

최저 임금 상승 여파 치과계에도 직격탄

〈1면에 이어 계속〉

치과위생사의 희망 근무 연수를 두고도 '마의 3년차'를 기준으로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 가장 많은 치과 의사가 꼽은 '3~5년'과 예비 치과위생사가 1순위로 꼽은 '1~3년'은 단순한 숫자 해석 이상의 견해차가 행간에서 읽힌다.

#직원 임금 몇 년 새 치솟아 개원가 한숨

원인은 뭘까. 일상화된 치과의 경영난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에 더해 치과 개원가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 속에서 잉태된 새로운 제도들이 치과 구인난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 시행은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구인난을 부추겼다는 치과의사들의 원성을 고스란히 듣고 있다.

2018년 치과 건강보험 수가가 2.7% 오른 반면 최저 임금의 인상률은 수가 인상률의 6배인 16.4%(시간당 7530원)였다는 식의 단순 분석을 뛰어 넘는 가중치가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신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임금 하한선이 최저임금제도 시행의 여파로 상승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임금 체계에 연쇄 충격과를 줬다는 게 현장의 분석이다.

특히 매년 10% 수준의 임금 상승이 이뤄지면서 5년차 직원들의 '몸값'이 수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역시 결국 5인 미만 치과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때문에 규모가 큰 병원급 치과에 오히려 치과위생사가 물리는 '양극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작은 치과들의 항변이다.

“
매년 10% 이상
임금 상승
...
워라밸 중시하는
사회 현상
구인난 부채질
”

#규모 큰 치과도 잦은 이직 골머리

만약 이 같은 논리라면 수도권 대형 치과병원이나 네트워크 치과에서는 구인난에 대한 고민이 없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이력서를 받고 또 면접을 본다는 점에서 보면 '동네 치과'들의 이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조금은 결이 다르다. 정도의 차이일 뿐 대형 치과병원 역시 직원들의 잦은 중도 이직이나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이력서 숫자를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직원 수가 많다보니 임금이나 복지 등 고정비용 증액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요시하는 최근 젊은 치과위생사들의 성향이 반영되면서 인원 충원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일부 치과병원의 경우 지역 특성 상 환자 응대가 까다롭고, 업무 강도가 세다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다. 근무 도중 '번아웃 증후군



〈이미지투데이〉



최근의 구인난은 치과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 인식, 제도의 변화가 반영된 총체적 난국의 산물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Burnout Syndrome)'을 호소하며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돈보다는 시간과 여유를 쫓는 경향이 치과에서도 서서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의 치과위생사들 역시 이 같은 인식 변화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물론 기존의 임금이나 복지 조건 등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 판단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흔히 '직원은 결국 기,승,전,임금'이라고 하지만 중, 장기적인 직업 전망과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과정이 임금, 복지, 업무범위, 병원 분위기 등과 맞물리면서 직원이 치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만난 그 자리, 끝이 보이지 않는 구인난 앞에 그들이 마주했다. 그래서 치과일까, 그래도 치과일까.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1인수술, 1인 구강내 촬영 시스템

더 강력해진 New CyClean Plus (에어+석션+미러시스템)

에어+석션미러 시스템 사이클린

CE
특허번호 10-1616729
*추가특허출원중

에스에스글로벌

WWW.SSGLOBAL.CO.KR

문의 032-655-2845
010-6265-0241

석션 압력 업그레이드!

입김없이 환자 촬영!!

설명 및 사용 영상 QR코드

SUCTION

AIR

명인제약(주) 효능·효과 치주치료 후 치은염 및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잇몸치료제 부문'
주최: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복합성분 이가탄

치과치료와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성분부터 다릅니다
차별화된 4가지 복합성분

- 제피아스코르브산
- 카르바조크롬
- 토크페롤아세테이트 2배산
- 리소짐염산염

잇몸이 달라집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

임플란트, 스케일링 후에도 역시 이가탄!
이가탄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영국 국제 저명학술지
BMC Oral Health 게재

세계적 학술지가 인정한 **잇몸염증 효과 임상시험**
Hong et al. BMC Oral Health(2019) 19:40에서 확인해보세요

*인더넷 약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청문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제과)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상훈 위원장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세 번째 도전...“민초 치과의사 대변자 되겠다” 현 집행부 임원 두 명, 재야인물 한명 바이스 구상

이상훈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 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3월 10일 치러지는 제 31대 치협회장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위원장 지난 12일 협회 4층 중회의실에서 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협회장 선거 출마는 지난 29대, 30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출직 부회장 세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소 두 명은 현직 치협 집행부 임원 중, 한명은 개혁 성향을 가진 재야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임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확실한 공개는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어로 '민초 치과의사들의 대변자', '치과계 최초 세 번째 협회장 출마 도전자', '치과계 세대교체를 위한 적임자'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개원환경 악화와 더불어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 사무장치과, 먹튀치과 등으로 인한 국민구강건강 피해가 심화되면서 치과의사들의 신뢰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 도탄에 빠진 치과의사들의 살림살이부터 적극 챙기는 '민생 회무'가 절실하다"며 "강력한 회생의 리더십을 발휘할 민초들의 대변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근거로 25년 가까이 22.6평의 작은 변두리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사들의 고단한 삶과 척박한 개원환경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소송을 불사하며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전쟁을 벌여왔고 협회장 직선제 쟁취를 위한 삭발투혼 감행, 올바른치과전문의 제 확립, 통합치과전문의 사수운동 등을 통해 치과계를 위해 몸 바쳐 온점을 중점 부각했다.

이 위원장은 "분회와 지부를 거치며 밑바닥부터 회무를 착실히 익혔다. 특히 지난 30대 집행부 3년간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재야의 활동가로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3만 치과의사들의 민생 회무를 돌봐야 하는 협회의 수장을 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욱 확고하게 생겼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세 후보의 득표차가 불과 몇십표 차이로 결정된 직전 선거에서 자신이 선두를 지킨 문자 투표에서만 천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고 회고하면서 당시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선거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가 됐고 재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로 치과계 역사에 기록됐다.

이 위원장은 "앞선 선거에서 넘어지고 깨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세 번째 출마를 결심한 것은 치과계를 위한 뜨거운 가슴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며 "세 번째 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와 충심을 이번만은 꼭 회원들이 알아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유관 단체인 의협과 한의협



치협 31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상훈 위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은 이미 40, 50대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로 주장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을 중점 부각했다.

이 위원장은 "위기의 치과계에도 이제 역동적인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며 "패기 넘치고 경륜까지 갖춘 저야말로 적임자다. 치과계를 멋지게 이끌어갈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피력했다.

한편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 있기까지 1인 1개소법 사수운동의 선봉에서 합헌을 이뤄내는데 일조했던 그는 협회장이 되면 첫째 보완입법 관철, 둘째 보조 인력문제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등 치과의사 민생문제 해결, 셋째 선거후 분열된 치과계 대화합, 넷째 치기협, 치위협, 치산협과 치과계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

력, 다섯째 존중받는 치과의사 위상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치과계 개혁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눈 건강이 악화돼 생업까지 지장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치과계가 정치판처럼 돌아가는 상황에 환멸을 느껴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었지만 '치과계를 깨끗하게 정화하겠다고 나섰으면 퇴장을 하면 안 된다', '청소부가 청소를 하려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치과계 멘토들의 말씀에 큰 책임감을 느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협회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출마 결심을 굳힌 배경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된다

복지부, 지정 심사·갱신제 도입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은 퇴출할 수 있도록 지정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

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BONIDA DUAL Alpha

보니다 듀얼 알파 구강 카메라

Differentiated Technology Innovative in Oral Camera

스마트한 HD 초고화질 구강 카메라
검사 기능부터 눈금자 측정 모드까지

쉽고 편리한 HD급 고화질
보니다 듀얼 알파(Bonida Dual Alpha) 구강 카메라
별도 디지털 카메라 사용 시, 메모리 카드의 사진을 PC로 옮기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니다 듀얼 알파'는 최초로 Dual Camera 기능과 치수 측정 기능을 채택하였고 선명하고 깨끗한 HD급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여 원활한 환자 상담 가능

- DUAL LENS
- AUTO-FOCUS
- EASY CAPTURE
- 10min OFF
- RULER MEASURING
- USB CONNECT

*전원 절전 모드: 10분 카메라 미사용 시, 자동 절전 모드로 변환

빠른 오토 포커스 기능
수정체와 유사한 액체렌즈 사용하여 원터치 조작으로 오토 포커스 및 검사 촬영 가능

넓은 초점/포커스 범위 촬영 가능
세계 최초 Dual 카메라 채택하여 광범위 초점 범위 촬영 가능, Intra 카메라 최소 5mm, Extra 카메라는 무한대 초점 거리

HD 720p 해상도 & 빠른 Frame rate
HD 720p의 높은 해상도를 30 Frame 빠른 속도로 출력하여 끊김 없는 선명한 영상 구현

편리한 치수 측정 모드
촬영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화면에 십자형태의 눈금자가 나타나고 측정 위치에 따라 눈금 비율이 조정 측정 모드는 Intra-oral 카메라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측정된 치수는 참조용

Extra 카메라 보호 슬라이더 커버
Intra 및 Extra 카메라 자동 전환 기능과 비사용 시 Extra 카메라 보호 커버 기능

카메라 기능 색상 구분
USB 연결 상태를 LED 색상으로 구분, Amber(황색)는 장치 인식 중 표시, Green은 사용 가능 표시

원터치 금속 커넥터 사용
원터치 탈착으로 사용 편리, 안전한 금속 재질로 충격에 강하며 고급 외관 디자인



(주) 맥스덴탈 본사 032)624-3277 sales@maxdental.co.kr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상용3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턱관절포럼 제19기 연수회

임상의가 즉시 시술 가능한 턱관절 세정술 마스터 및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 턱관절 Clinic 연수와 함께하는 아시아턱관절포럼 제19기 연수회

턱관절장애의 치료는 그 원인이 제거 되어야 치료성적이 좋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국내에서 초보자도 즉시 시술 가능한 국소마취제에 의한 동통감별법과 턱관절 세정술 연수회와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 턱관절 클리닉의 핵심 연구에 관한 강의 및 정 훈 턱관절 Clinic 임상참관으로 턱관절장애를 완전 마스터하는 연수회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수회 특전

★보수교육점수 2점★

- 보수교육점수 2 점
- 심평원 턱관절치료 인증기관 교육이수증 발급
- 초보자도 시술 가능한 국소마취제에 의한 동통감별법과 턱관절 세정술 마스터
-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 턱관절 Clinic 연수 및 병원견학
- 턱관절장애의 진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스플린트 치료, 턱관절 세정술 마스터
- 정 훈 턱관절 Clinic 임상참관

연수회 일정

국내 강연회, 턱관절 세정술 실습 및 정훈 턱관절 Clinic 임상참관
(주제: 개원의가 즉시 턱관절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Know How 전수)

■ 국내 강연회

- 일시: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 6:30
- 장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과대학 본관 313호 강의실

■ 초보자도 즉시 시술 가능한 국소마취제에 의한 동통감별법과 턱관절 세정술 실습

- 일시: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 9:00
- 장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과대학 본관 313호 강의실

■ 정 훈 턱관절 Clinic 임상참관 (선착순 5명에 한함)

- 일시: 2020년 2월 15일 토요일 오전 8:30 ~ 11:00
- 장소: 정 훈치과

국외 연수회

(주제: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의 턱관절 치료의 모든 것)

- 일시: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1:00 ~ 5:00
- 장소: 중국 Peking University 치과병원 (Peking University 턱관절 Center 및 치과병원 System 견학)

국내 연수회 강의 Schedule

2020년 2월 8일 (토): 오후 4시 ~ 9시

15:40~16:00	접수
SESSION I	
16:00~17:30	정 훈 박사 1)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서 치료 가능한 증례 선택, 치료법 2) 스플린트 치료를 해야 하는 증례의 선택법 및 환자관리 노하우 3)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플린트 치료로 효과가 없는 증례에 대한 관리법(턱관절세정술, Hyaluronic acid 주입, 보톡스 주사) 4) 각종 물리치료 소개 5) 심평원 턱관절치료 인증기관 신청방법 6) 정 훈 턱관절 clinic 임상참관 안내
SESSION II	
17:30~18:30	류재준 교수 1) 스플린트 치료의 기본과 임상 의 모든 것 2) 스플린트 치료에 있어 주의점
18:30~19:00	석식
SESSION III	
19:00~21:00	초보자도 즉시 시술 가능한 국소 마취제에 의한 동통감별법과 턱관절 세정술 실습 (정 훈 박사, 이상화 교수, 민경기 교수, 황진혁 교수, 김주원 교수)

연자 안내



국내연자 정 훈 박사
 동경의과치과대학 6년 수련과정수로 및 치의학 박사학위 취득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학회 명예회장
 아시아턱관절학회 이사장
 정 훈 치과 원장



국내연자 류재준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 과장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학회 부회장
 아시아턱관절학회 부위원장



국외연자 Kai-Yuan Fu 교수
 Professor and Chief of Center for TMD & Orofacial Pain in Peking University School & Hospital of Stomatology
 Professor and Chief of Dept. Of Oral & Maxillofacial Radiology in Peking University School & Hospital of Stomatology
 Board member and Vice president, Chinese Society for TMD & Occlusion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 TMJ Clinic 연수회 강의 Schedule

2020년 2월 21일 (금): 오후 1시 - 오후 5시

SESSION I	
13:00- 14:30	Kai-Yuan Fu 교수 - Peking University 치과병원 턱관절 치료의 모든 것
SESSION II	
14:30-17:00	1) Peking University 턱관절클리닉 참관 2) Peking University 치과병원 System 참관

연수회 등록 안내

- 모집인원: 30명 (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 등록문의: 이은경 Tel: 02)318-2866 E-mail: asiantmj@daum.net
- 등록방법: 전화나 이메일로 등록 신청 후 입금을 하시면 등록안내 및 연수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85-466740 예금주: 방강미
-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 턱관절 Clinic 연수회 일정
 -2/20(목) 아시아나 OZ335편으로 15:00 인천출발 16:25 북경도착
 -2/21(금) 중국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 턱관절Clinic 제19기 연수회 참석
 -2/22(토) 베이징 전일관광, 아시아나 OZ336편으로 17:35북경출발, 20:25인천 도착 후 해산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중국 왕복 항공권 및 숙소 예약은 등록 후 여행사 모두투어 김기영(02-706 6200, 010-4210-6127)에서 안내 드립니다.
- 중국Peking University 연수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및 호텔비는 별도입니다(별도 추후안내)

■ 등록비용 (사전등록 마감일: 2020년 2월 1일)

연수회 등록(국내: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외:Peking University)	사전등록	현장등록
국내 강연회	8만원	10만원
국내 강연회 + 세정술 실습(선착순 10명)	30만원	35만원
국내 강연회 + 정 훈 치과 임상참관(선착순 5명)	30만원	현장등록불가
국내 강연회 + 세정술 실습 + 정 훈 치과 임상참관	40만원	현장등록불가
국내 강연회 + 국외 연수회(Peking University)	40만원	현장등록불가
국내 강연회 + 세정술 실습 + 국외 연수회(Peking University)	50만원	현장등록불가
국내 강연회 + 세정술 실습 + 정 훈 치과 임상참관 + 국외연수회	60만원	현장등록불가

주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후원 아시아턱관절학회, 국제치과문화교류협회, (사)대한턱관절학회, 정 훈 턱관절연구소
협찬 메디칼 유나이티드, 오스팀임플란트(주), 에스엠 메디칼, 디스콜, 모두투어여행사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원급 확대 추진

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밝혀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 검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계획과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2017년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필요도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더욱이 신의료기술로 진입하는 치료



에 필수적인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종별·진료목적별·세부항목별로 혼재돼 있는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

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또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연계법이 속히 제정돼 국민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공·사보험 간 연계·협력체계가 보다 탄탄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 달성과 실손보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덕담·조언·격려 속 치협 발전 기원

치협 역대 회장 간담회... 회무·치과계 현안 공유

치협 역대 협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며 치과계 현안 및 회무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30대 집행부에 전달했다.

치협 역대 회장 간담회가 지난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역대 회장 중 김정균·이기택·정재규·안성모·이수구·김세영 고문, 최남섭 명예회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했으며, 치협 집행부에서는 김철수 협회장과 조영식 총무이사 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치과계 안팎의 주요 흐름을 비롯해 전반적인 회무 추진 경과를 참석

한 역대 회장들과 공유했다.

이에 대해 역대 회장단은 김 협회장에게 성공적인 회무 수행을 기원하는 덕담을 건네는 한편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의견 및 조언들을 함께 나누며 집행부를 격려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역대 회장님들이 치과계를 위해 좋은 말씀과 덕담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며 "저는 또 나름대로 치과계의 현재 상황이나 협회에 대해 궁금하신 점 등을 설명드릴 예정인 만큼, 오늘 간담회가 이런 조언들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치협 역대 회장 간담회가 지난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 50% **핸드피스 카트리지**
교체·수리비
경제치과기계상사 02)755-3354

CE 0068 TGA 323956 HC 302359 ANVISA 83046479001 SFDA MDMA.19280377 MDSAP TÜV Rheinland EN ISO 13485:2016 GMP LIFES LUKOMAR EQUIPMENT EN ISO RoHS

이 제품(STERLINK)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본 기기 (STERLINK* FPS-15s Plus, STERLINK* MINI)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제조업 허가 번호: 제 5307호 / 제조사주소: (주)플라즈맵,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83 1층, 3층 301호(죽동)

Low Temperature Plasma Sterilizer

평균 시간 단 7분

(STERPACK* Pouch Mode 기준)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멸균모드

문의 1544-0508 제조 | 플라즈맵 plasmappmedical.com

집단지성이 제시한 '한국형 치과감염관리'

“치과 감염관리 위한 보상 필요” 한 목소리 치협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공청회

치과계가 '집단지성'을 통해 제시한 치과 감염관리 매뉴얼과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치과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체찍'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당근'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치협이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공청회'를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제2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은 각 치과의료기관에서 실정에 맞는 감염관리 정책과 실행 방법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 된 감염관리 참고사항 및 자료를 의미한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치과계의 대표적인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치과감염관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의미가 크다.

특히 김철수 협회장, 임준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양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등 치과계 단체장과 장애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이 참석해 공청회 내용과 향후 감염관리 정책의 전망을 함께 나눴다.

치과계 감염관리 모든 주체 '총출동'

나승목 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호성 교수(원광치대)가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개발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어 황재홍 치협 경영정책이사가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권고수준'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보건복지부(조영대 사무관), 치협(김진립 원장), 치병협(이기준 교수), 치의학회(김진선 원장), 치위협(이교은 실장), 치



치협이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공청회'를 지난 10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제2강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철수 협회장

기협(우창우 대한치과기공학회 회장), 치산협(임재홍 바이오덴트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홍수연 원장) 등 사실상 치과 감염

관리와 관련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 총의를 모으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패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치과감염관리만의 특수성을 지적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치과 감염관리 매뉴얼의 의미와 중요성, 현실적 적용 동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치과감염관

리 표준정책 매뉴얼의 흐름을 짚는 한편 지속 가능한 감염관리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 보상 등의 정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계와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만큼 오늘 공청회가 개원가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치과 감염관리 정책방안이 제시되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추계된 적정한 감염관리 보상 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윤리의식 확립 최우선...지침 방향 되짚었다

윤리위원회, 2019년 윤리 쟁점 사안 검토 김철수 협회장 “자율징계권 통한 도덕성 확립”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한해 치과계 윤리 쟁점 사안을 되짚어보고 향후 나아가할 방향을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윤리위원회 송년회가 지난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한성희 윤리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이 참석, 2019년 한해 치과계

이슈를 검토하고 차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계 윤리의식 자정 작용 확립을 핵심 이념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 의지를 표명했다.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울산 및 광주에서 시범



한성희 윤리위원회 위원장.

사업으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발판 삼아 치과계 윤리의식 함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발족한 '치과의사윤

리포럼' 활동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윤리 지침을 보다 견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성희 위원장은 “치과계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윤리의식 회복 및 지침을 확립해야 한다”며 “최근 치과 과잉진료 의혹으로 소송 중인 K원장 사안을 포함해 치과계가 보다 윤리적으로 정화 작용을 일궈내기 위해서라도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지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고고고 | 문문문문 | 김백홍김 | 찬순예김 | 숙지표찬 | 자문문문 | 위위위위 | 원원원원 | 권박백이 | 태준승혜 | 호우진호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권김박이 | 순민창종 | 배경우욱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오윤이 | 원지정선 | 경연태규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현섭호수 |
| 고고고고 | 문문문문 | 김백홍김 | 찬순예김 | 숙지표찬 | 자문문문 | 위위위위 | 원원원원 | 권박백이 | 태준승혜 | 호우진호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권김박이 | 순민창종 | 배경우욱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오윤이 | 원지정선 | 경연태규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현섭호수 |
| 감감감감 | 사사사사 | 박김이 | 건은경 | 배숙수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장장장장 | 구김김김 | 본강법장 | 석용환식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현섭호수 |
| 명명명명 | 회회회회 | 안한 | 창중 | 영석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장장장장 | 장장장장 | 주주주주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현섭호수 |
| 자문문문 | 위위위위 | 이최안이 | 태인성원 | 호호호호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장장장장 | 장장장장 | 주주주주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김운상김 | 윤석일주 | 관채성훈 | 부부부부 | 회회회회 | 장장장장 | 현섭호수 |

Thank You For Everything

구강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

유한 덴탈케어 프로페셔널은 교육서비스를 통한 환자 맞춤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유한양행의 진실한 마음과 근거 기반의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탄생한 구강관리용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2019 Thank you Promotion



칫솔 8구 및 보조용품 아크릴 거치대 및 구강용품 전시 디오라마 증정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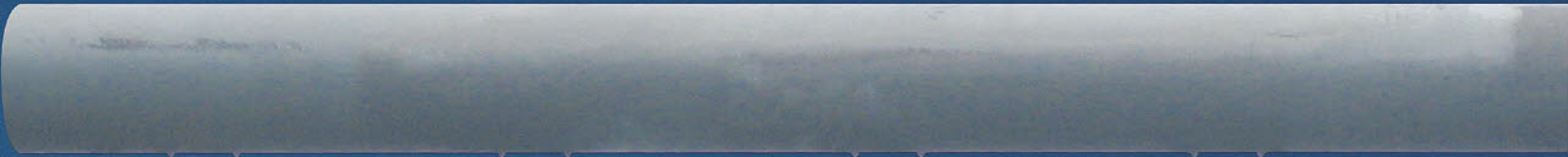


구매 및
제품 문의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영업팀 Tel : 02-828-0154 / 마케팅팀 Tel : 02-828-2500
www.yuhandent.com yuhandent



말해주세요, **의료분쟁**
말해주세요, **의료중재원**



의료중재원

해결까지 최대 120일
저렴한 신청 수수료

의료소송

해결까지 2년 이상
고객의 소송수수료



의료분쟁 해결의 올바른 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문적인 감정과 합리적인 조정,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이정표
의료중재원이 만들어 갑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의료분쟁무료상담 1670-2545 www.k-medi.or.kr

치과의사 300명 대상 설문조사

구인난 해결방안 입학정원 확대 35.2%

Q치과 구인난의 근본적 원인은?
A 임금문제...인상이 우선은 아니다

치과의사들은 치과 구인난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임금(108명, 36.4%)을 꼽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선택과 고용에 있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우선 고려 순위는 동일 수밖에 없을 터. 그러나 치과경영상의 문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에 대한 적정 임금 책정 고민이 이어지다 보면 임금인상만을 우선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개원가 원장들의 목소리였다.

구인난의 원인으로 이어진 답변은 ▲근무환경(67명, 22.6%) ▲직업전망(55명, 18.5%) ▲복지(25명, 8.4%) ▲업무범위(25명, 8.4%) ▲내부갈등(17명, 5.7%) 순이었다.

직업전망이 상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의 업무범위와 역할적 한계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Q초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A기본부터 시작해야 인식

신입 치과위생사의 적정 초봉은 ▲2200만원 이하(132명, 44.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2200~2300만원(70명, 23.4%) ▲2300~2400만원(50명, 16.7%) ▲2400~2500만원(31명, 10.4%) ▲2500~2600만원(9명, 3%) ▲2600~2700만원(4명, 1.3%)순이었다.

설문문항 중 최고 연봉수준인 2700만원 이상은 3명(1%)이 답했다.

오는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월급 179만5310원(세후실수령액 162만3560원), 연봉으로는 2154만3720원이다. 많은 수의 치과의사들이 사회 초년생 치과위생사의 연봉은 기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초 신입 구직자 13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신입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은 평균 3040만원이었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3170만원, 전문대 졸업자가 2850만원, 고교 졸업자가 287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구인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
A 정원확대, 유휴인력 활용

구인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묻은 질문에는 ▲치위생(학)과 정원 확대(105명, 35.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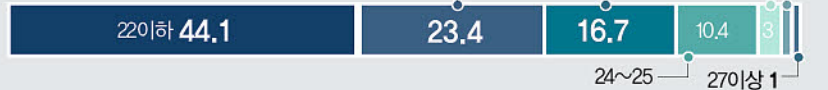
당장 치과위생사의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것이 빠른 대안이라는 의견으로, 스태프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협이 추진하는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어 ▲유휴인력활용(59명, 19.8%) ▲업무범위조정(확립)(41명, 13.8%) ▲평균 급여 인상(40명, 13.4%) ▲직원 복지 향상(36명, 12.1%) ▲임금피크제 도입(17명, 5.7%) 순으로 답했다.

▶치과 구인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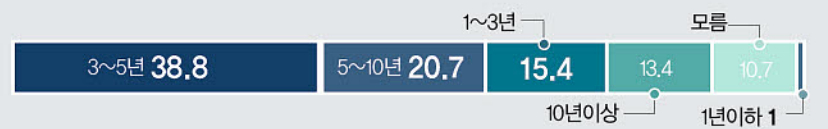
▶신입 치과위생사의 초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백만원 %)



▶구인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치과위생사 입사 후 얼마 동안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단위: %)



치과의사들은 어떻게든 활동 치과위생사의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방향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아가 치과에서 필요한 인력의 분업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파트타임 인력의 활성화, 치과행정 및 소독·감염관리 전문 인력 양성 움직임이 실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치과를 운영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또 하나

의 축인 조무사 인력과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접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Q치과위생사 입사 후 선호근무기간?
A 3~5년 차임상숙련도 필요

치과위생사가 입사 후 얼마 동안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3~5년(116명, 38.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시기가 임상숙련도나 경험

치이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의무회	장	총	순	호	총	무	이	이	정	대	이
회	장	무	지	학	무	이	사	정	옥	외	석
부	김	담	충	규	담	사	권	현	정	협	민
부	강	당	현	구	당	사	윤	승	환	력	환
부	남	이	공	혁	사	사	전	수	문	복	진
부	주	사	수	원	사	사	오	훈	화	지	용
부	김	선	원	성	사	사	박	철	문	복	진
부	성	용	철	창	사	사	허	영	문	화	지
부	박	주	주	동	사	사	이	원	후	생	이
부	양	운	운	현	사	사	함	태	생	담	이
부	차	현	성	성	사	사	정	승	공	보	이
부	김	의	성	준	사	사	진	승	공	보	이
부	박	경	준	업	사	사	박	상	공	보	이
부	노	상	업	형	사	사	김	선	공	보	이
부	이	상	형	철	사	사	오	영	공	보	이
부	윤	홍	철	은	사	사	주	윤	공	보	이
부	박	준	은	신	사	사	최	윤	공	보	이
부	장	은	신	은	사	사	심	동	공	보	이
부	장	은	신	은	사	사	안	현	공	보	이
부	장	은	신	은	사	사	안	현	공	보	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

치과의사 300명 대상 설문조사

치과위생사 퇴직이유 이직 23.7% 결혼출산 20.7%

도, 임금수준에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들이다.

이어 ▲5~10년(62명, 20.7%) ▲1~3년(46명, 15.4%) ▲10년 이상(40명, 13.4%) ▲특정할 수 없음(32명, 10.7%) ▲1년 이하(3명, 1%) 순이었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들의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진료에는 수월하지만 높아지는 연봉과 비례하는 ‘자기주장’에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많이 냈으며, “그럴 거면 차라리 신입이 낫다”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Q 구인을 원하는 치과위생사 수?
A 절반 이상 1~2명 치과위생사 필요

현재 구인을 원하는 치과위생사 수를 묻은 질문에는 ▲‘1명이 필요하다’가 99명(33.1%) ▲‘2명이 필요하다’가 79명(26.4%)을 기록하며, 응답한 치과의사 절반 이상이 1~2명의 치과위생사 구인을 원하고 있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다.

▲‘3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1명(13.7%) ▲‘4명이 필요하다’가 11명(3.7%) ▲‘5명 이상이 필요하다’가 3명(1%) ▲‘5명이 필요하다’가 2명(0.7%)으로 구인난이 더 심각한 치과도 상당했다.

치과위생사 구인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64명(21.4%)의 상황은 구인난 문제를 해결했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다.

Q 치과위생사 퇴사 시 주요 원인?
A ‘이직·출산’ 일반적 여성 퇴사사유

치과위생사 퇴사 시 주요 원인을 묻은 질문에는 ▲타 치과 이직(71명, 23.7%) ▲결혼·출산(62명, 20.7%) ▲직원 간 불화(57명, 19.1%) 순으로 고용시장에서 일반적인 여성의 퇴사 사유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1~3년차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치과를 찾아 많이 이직한다는 것이 개원가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어진 답변은 ▲연봉협상 결렬(56명, 18.7%) ▲복지조건 불만(46명, 15.4%) ▲출·퇴근 거리(7명, 2.3%) 순이었다.

출·퇴근 거리는 직장생활에 주요 고려사항이긴 하지만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에는 그 비중이 작아 보인다.

Q 치과위생사에게 가장 많이 지시하는 업무?
A 임상보조 압도적 “제일 가려운 곳”

평소 치과위생사에게 가장 많이 지시하는 업무를 묻은 질문에는 ▲임상보조(268명, 89.6%)라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치과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 치과위생사도 결국 임상이란 본질을 떠날 수 없는 직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답변이다. 이 외의 업무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임상 외에는 ▲환자 상담(16명, 5.4%) ▲데스크 업무(12명, 4%) ▲보험 청구(3

▶ 현재 구인을 원하는 치과위생사 수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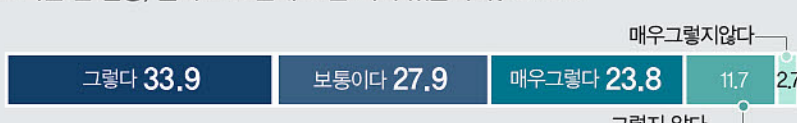
▶ 치과위생사 퇴사 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위: %)



▶ 평소 치과위생사에게 가장 많이 지시하는 업무는? (단위: %)



▶ 직원 간 갈등, 불화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위: %)



명, 1%) 순이었다. 이른바 치과위생사의 역할 성장 과정의 단계로 일컬어지는 업무들이 수치상으로는 와 닿지 않는 느낌이다.

Q 직원 간 불화로 고민한 적 있나?
A “치의두 명중 한명 경험”

직원 간 갈등, 불화로 인한 고민경험에는 ▲‘그렇다’가 101명(33.9%) ▲‘매우 그렇다’가 71명(23.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직원 간 갈등으로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 외 ▲‘보통이다’가 83명(27.9%) ▲‘그렇지 않다’가 35명(11.7%) ▲‘매우 그렇지 않다’가 8명(2.7%)이었다.

취재 현장에서는 문제 행동을 하는 특정 직원, 셋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발생하는 계과 갈등을 직원 간 갈등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치과위생사와 조무사 직군이 혼재 돼 있는 상황에서 오는 갈등이 많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서울대학교치과병원
TEL.02-2072-3114 www.snudh.org



예비 치과위생사 300명 대상 설문조사

신입 초봉 2300만원 이상 89.4%

Q구인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A결국은 임금, 최저임금 너무해

치과 구인난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예비 치과위생사들도 ▲임금(140명, 46.7%)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에게서는 당연히 임금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치과위생사들은 전반적으로 의료기사직군 중에서 치과위생사직군의 평균 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고, 신입 직원의 초임도 낮은 수준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임금 외에는 ▲근무환경(60명, 20%) ▲복지(41명, 13.7%) ▲내부갈등(33명, 11%) ▲직업전망(16명, 5.3%) ▲업무범위(10명, 3.3%) 순으로 구인난의 원인을 꼽았다.

업무범위와 관련해서선 조무사직군과의 업무범위 조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지

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방적 업무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었다.

Q초봉은 어느 정도가 적당?
A 2400~2500만원 이상은 돼야

신입 치과위생사들은 ▲2400~2500만원(80명, 26.7%) 수준의 초봉이 적당하다는 답변을 많이 내놨다.

이어 ▲2300~2400만원(72명, 24%) ▲2500~2600만원(45명, 15%) ▲2700만원 이상(39명, 13%) ▲2600~2700만원(32명, 10.7%) ▲2200~2300만원(30명, 10%) 순이었다. ▲2200만원 이하를 원한다고 답한 인원은 2명(0.7%)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2400만원 전·후에 기대임금이 형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근거 없는 바람이 아니라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급여액, 선배·친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개월가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높은 급여를 생각하는 경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기대치로 풀이된다.

Q구인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A 급여가 원인이라면, 원인 해결해야

구인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급여인상(152명, 50.7%)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이와 관련 한 예비 치과위생사는 “여러 조건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결국 급여이지 않겠냐.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급여 외에는 ▲직원 복지 향상(107명, 35.7%) ▲업무 범위 조정(확립)(31명, 10.3%) ▲임금피크제 도입(5명, 1.7%) ▲치위생(학)과 정원 확대(4명, 1.3%) ▲유휴 인력 활용(1명, 0.3%) 순이었다.

결국은 구인난 해결에 있어 당장의 열쇠는 급여 아니면 복지인데, 급여보다는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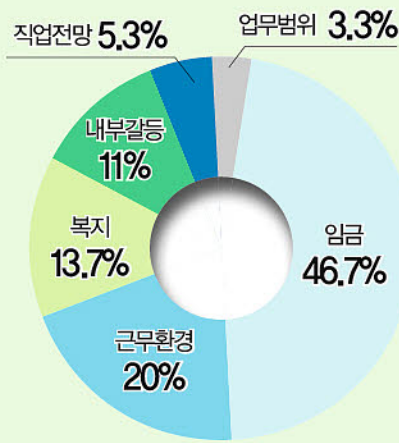
겠느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Q입사시 몇 년 동안 일할 계획인가?
A 1~3년, 평생직장 개념은 이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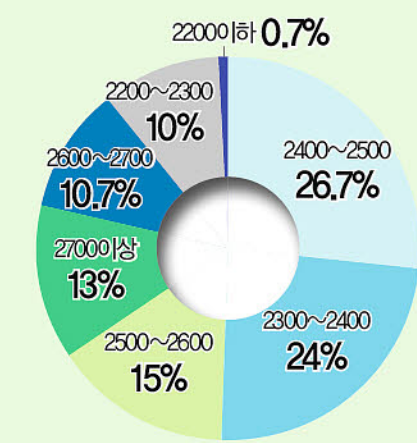
예비 치과위생사가 당장 생각하는 근속연수는 ▲1~3년(114명, 3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5년(82명, 27.3%) ▲모름(42명, 14%) 순이었다. 이는 휴직이나 전직을 염두에 둔 답변이라기보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직업,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근무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불확실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 ▲5~10년(31명, 10.3%) ▲10년 이상(28명, 9.3%) ▲1년 이하(3명, 1%) 순으로 답했다. 치과위생사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직업 지속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에서 현 치과계 구인난의 또 다른 원인을 추론 할 수 있다.

▶치과 구인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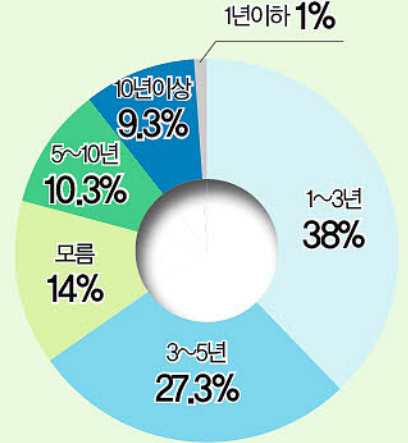
▶신입 치과위생사의 초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단위: 만원)



▶구인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치과 입사를 한다면 몇 년 동안 일할 계획입니까?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최성호
교무부	학장	김의성	
학생부	학장	김백일	
교학부	학장	심준성	
연구부	학장	정의원	
교육부	학장	허경석	
강남부	학장	박정원	
치의학교육원장	겸	국제협력부장	최윤정
치의예과	부장	조성원	

치과대학병원		
병원장	김기덕	
부원장	이제호	
기획관리실장	정일영	
교육연구부장	이기준	
중앙기공실장	김지환	
원내생진료실장	박원서	
인체구강유래자원은행장	송제선	
기획진료차장	차정열	
교육연구차장	박지만	

예비 치과위생사 300명 대상 설문조사

치과 선택 중요 기준 병원분위기 36.7%

근본적으로 이 직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이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아니라면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Q구직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은?
A인터넷 시대, 당연히 검색이 먼저

구직 방법으로는 ▲구인구직 사이트(205명, 68.6%)를 활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학교 게시판(50명, 16.7%) ▲교수 및 지인 소개(38명, 12.6%) ▲생활 정보지(6명, 2%) 순으로 나왔다.

인터넷 시대인 만큼 구인구직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구인·구직 정보의 집결량에 따라 사이트의 순위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인·구직의 경로를 보다 다양화하고, 특정 사이트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Q치과선택 가장중요 요소는?
A화목한 분위기 원해

치과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병원분위기(110명, 36.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앞선 질문에서 구인난의 원인으로 임금이 가장 많이 지목됐던 것을 생각하면, 실제 일자리를 택하는 조건에서는 정서적인 요소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답변이다.

이 외 ▲직원 복지(90명, 30%) ▲연봉(69명, 23%) ▲임상 능력 향상(18명, 6%) ▲치과규모(7명, 2.3%) ▲치과위치(6명, 2%) 순이었다.

화목하고 정겨운 병원 분위기,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많이 신경 써 주는 병원이라면 연봉은 나중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다.

Q선호하는 복지 제도가 있다면?
A자유로운 휴가, '워라벨' 보장

선호하는 복지 제도를 묻은 질문에는 ▲자유로운 연월차 사용 보장(124명, 41.5%)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예비 치과위생사들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그야말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중시 하는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했다. 예비 치과위생사들은 큰 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로 평균 보다 높은 연봉,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등을 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풍부한 인력풀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연차 활용의 이점을 꼽았다.

이 외 ▲기숙사 운영(59명, 19.7%) ▲인센티브 제공(51명, 17.1%) ▲세미나 등 자기계발비 지원(34명, 11.4%) ▲식대 제공(18명, 6%) ▲명절비 지급(12명, 4%) ▲동호회 운영(1명, 0.3%) 순이었다.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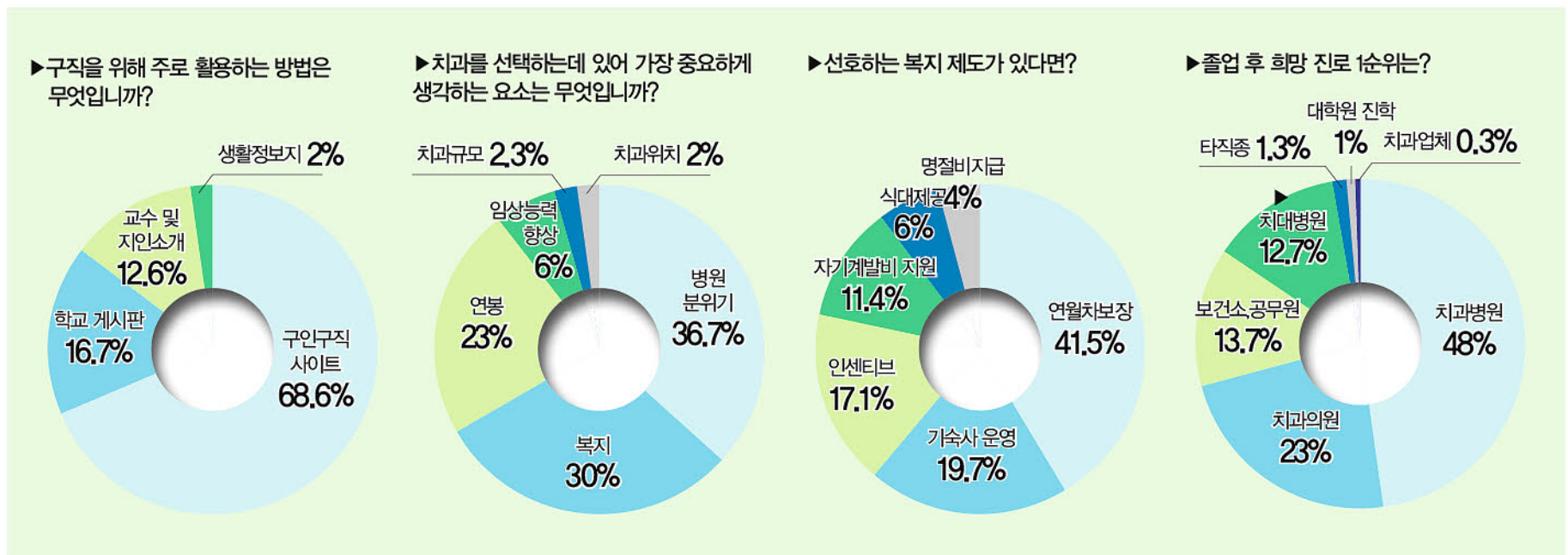
수도권의 규모가 큰 치과에서는 기숙사 운영을 통해 치과위생사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은 치과위생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증한다.

Q졸업 후 희망 진로 1순위는?
A치과병원, 연봉·체계적시스템 기대

졸업 후 희망 진로 1순위는 예상대로 ▲치과병원(144명, 48%)이었다. 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교적 높은 연봉과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 연차활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아무래도 치과병원에 더 많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었다.

치과병원 다음으로는 ▲치과의원(69명, 23%) ▲보건소 등 국가직 공무원(41명, 13.7%) ▲치과대학병원(38명, 12.7%) ▲타직종 진출(4명, 1.3%) ▲대학원 진학(3명, 1%) ▲치과업체(1명, 0.3%) 순이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 손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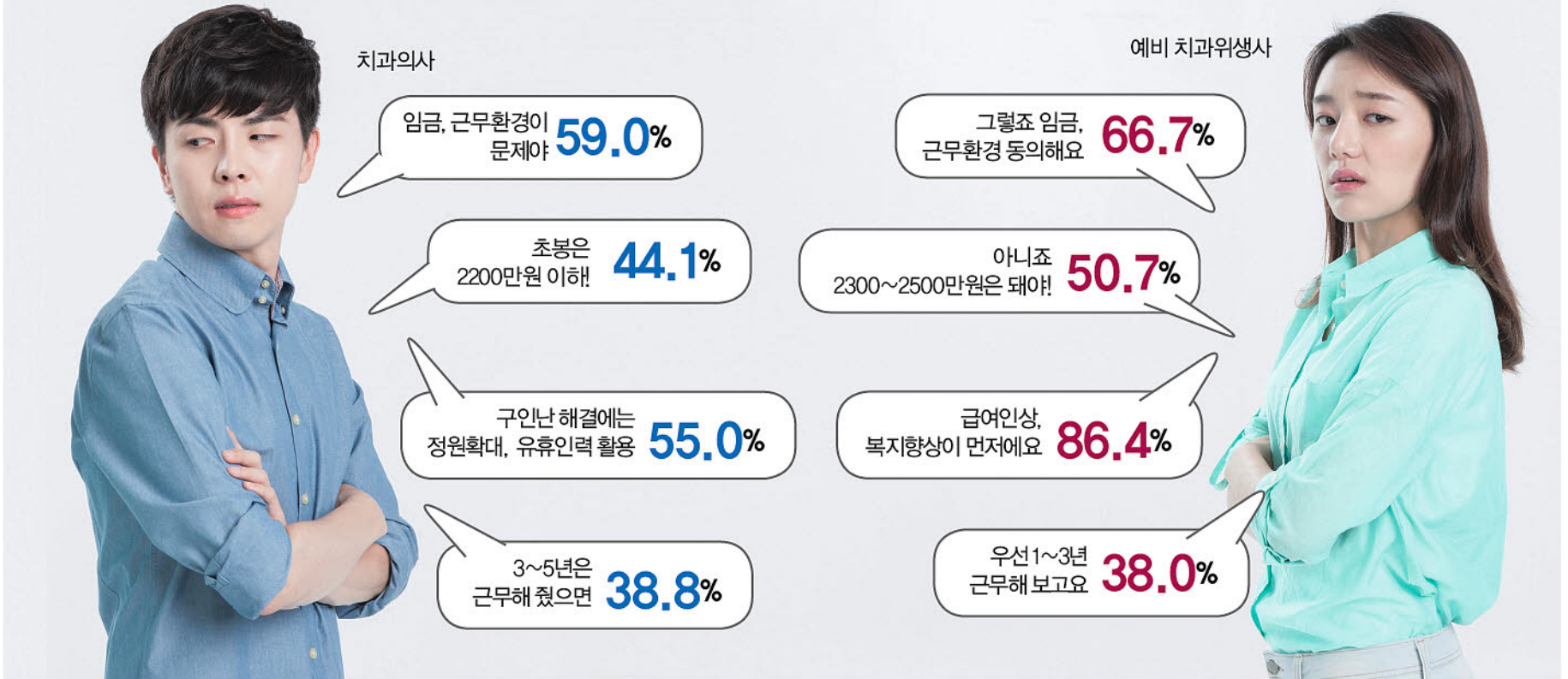
062)220-3800 <http://dent.chosun.ac.kr>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3(서석동)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치과의사 · 예비 치과위생사 설문 비교 분석

‘안올까’ ‘못올까’ 치과계의 동상이몽



2019년 겨울, 치과계 구인난을 마주하는 두 주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생각은 이렇게 같고, 저렇게 달랐다.

본지가 창간 53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집 기획 설문조사에서 구인난에 대한 치과의사 300명, 예비 치과위생사 300명의 인식이 만났다, 헤어졌다.

이들에게 던진 공통문항의 결과에서는 같은 생각도, 다른 생각도 뚜렷한 양상으로 그려졌다.

우선 구인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들은 ‘임금’을 첫손에 꼽았다. 공통문항 중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한 대목이다. ‘임금’은 치과의사 108명(36.4%), 치과위생사 140명(46.7%)이 선택한 구인난의 최대 함수였다. 하지만 그 임금의 적정선을 놓고는 양측의 생각이 엇

갈렸다. 신입 치과위생사의 초봉이 어느 정도여야 적당한지 묻는 질문에 치과의사는 가장 낮은 범위인 ‘2200만원 이하’(132명, 44.1%)를 가장 많이 택한 반면, 이 수준의 임금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예비 치과위생사는 단 2명(0.7%)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반대로 설문 보기에서 가장 높은 범위의 임금인 ‘2700만원 이상’을 고른 치과위생사가 39명(13%)인데 비해 치과의사의 경우 3명(1%)에 머물렀다.

#구인난 해법 · 임금 수준 · 근속연수 ‘시각차’

구인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치과의사의 경우 ‘치위생(학)과

정원 확대’(105명, 35.2%)를 가장 좋은 방안으로 꼽았다. 유휴인력 활용(59명, 19.8%)도 상당수 치과의사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예비 치과위생사의 생각은 달랐다. 응답자의 절반이 급여인상(152명, 50.7%)이 절실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같은 맥락에서 복지향상(107명, 35.7%)이라는 응답도 만만치 않았다. 치과의사가 중요하다고 꼽은 ‘정원 확대’와 ‘유휴인력 활용’은 각각 4명(1.3%)과 1명(0.3%)에 불과했다.

그나마 양측이 고른 답변 중 가장 비슷한 비중을 보인 항목은 업무범위조정으로, 41명의 치과의사, 31명의 치과위생사가 이를 선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치과의사가 정원 확대

나 경력 단절 여성 활용 등 정책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 반해 치과위생사는 급여 인상이나 복지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 항목에 더 뚜렷한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일 치과에 입사를 한다면 얼마나 근무할까. 이 질문에 예비 치과위생사는 ‘1~3년’(114명, 3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치과의사가 ‘1~3년’을 선택한 경우는 46명(15.4%)으로 예비 치과위생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치과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치과위생사의 근무 연수는 3~5년(116명, 38.8%)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에게도, 치과위생사에게도 갈림길은 ‘마의 3년 차’였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원장
한중석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연구부원장
교무부원장보
교무부원장보

설양조
박영석
이성중
안진수
윤형인

교무부원장보
학생부원장보
학생부원장보
학생부원장보
연구부원장보

임정준
조성대
정지훈
정신혜
김선영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자외선 임플란트의 대표주자
포인트 임플란트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임플란트 패키지
계약 500억 돌파!
(누적, 2019년 4월 기준)



UV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 골융합속도가 4배 빠르고 골밀도가 2배 강하며 신생골과 임플란트 표면사이의 연조직 침투율은 21배 감소한다. - UCLA Dr.오가와교수

<Takahiro Ogawa, DDS, PhD, Ultraviolet Photofunctionalization of Titanium Impla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Implant, 2014>

특히 받은 자외선 광촉매 임플란트! 임플란트 페일나면 UV로 바꿔 심습니다!



포인트 자외선 임플란트



당사 일반 임플란트

- 차별화된 임플란트 제품 고민
- Early & Immediately Loading 고민
- 임플란트 수술 실패로 인한 고민
- 낮은 임플란트 수가 고민

포인트 임플란트 데모요청 | 02)866-2877

벤처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출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
(예시 : 투자금액 3,000만원 : 소득공제율 100%, 투자금액 5,000만원 : 소득공제율 70%)

동상이몽 인터뷰

치과의사의 시각 '77년생 김현정' 나의 직원 면접기

쇼핑하듯 치과 옮겨 다니는 직원 '한숨' '현재 진행형' 구인난에 별들 날 올까



“
**구인난 자유는 언제쯤
 직원 못구해
 개원 날짜도 미뤄**
 ...
**업무 범위 재설정
 인력 확대 등
 근본적 대책 필요**
 ”

“치과위생사가 치과를 면접 본다고 하죠? 그 말 농담만은 아니네요.”
 마흔 넘은 나이에 2년 전 늦깎이 개원을 한 김현정 원장(가명). 서울의 중심도, 번두리도 아닌 2호선 라인의 저 어디쯤 치과를 냈다.
 그는 사실 개원 이전부터 구인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와 기자재 세팅까지 모두 마쳤는데, 정작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예정했던 개

원 날짜를 3주나 미루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한 기다림의 시작이었다. 4명 정도의 스태프가 필요한데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들고 나면서 구직자 부족으로 항상 1명이 모자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원장은 “면접을 보는 단계까지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어쩌다 면접을 보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여러 치과의 장점을 모은 요구사항을 얘기하기도 한다. 특히, 신입 치과위생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답답하다”며 “어떻게든 치과위생사만으로 스태프를 구성하려 하는데 이 원칙을 바꿔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면접 보러 오다 치과가 멀어서 다시 돌아간다는 연락을 받는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개원 경력으로만 보면 초보인 김 원장이 치과위생사만 고집하는 데는 개원 전 강남의 잘 나가는 대형치과병원에서 오랜 시간 페이닥터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 원장은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나 임상에 대한 이해도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동네치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치과임상에 필요한 절대적인 치과위생사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예전 병원에 있을 때도 스태프 구인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었다. 일단 대형치과병원은 보통 연말에 공채를 통해 갓 졸업한 치과위생사들을 뽑곤 하는데, 여기도 1년을 채 못 버티고 나가는 인원이 70~80% 수준이다.
 또 출산, 이직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구인난은 모든 치과의 문제”라는 게 김 원장의 2년차 구인 소감이다.
구직자 부족해 '항상' 구인난
 김 원장에 따르면 평균 급여로만 보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급여나 복지, 교육 등 부분에 있어 치과병원이 조금 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경력이 점점 쌓여가는 스태프 입장에서는 장점만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임금체계와 다양한 복지 혜택, 분업화된 업무가 처음엔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연차가 오를수록 가중되는 업무량과 난이도, 이에 따른 책임과 정량적 평가체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에 쌓인 스태프에게 때마침 일반 치과의원으로 연봉과 직급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대형치과병원 역시 구인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김현정 원장은 “보통 1~3년 차 스태프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봉이나 복지수준이 맞지 않아 이직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 시기 이직이 너무 잦다면 그건 본인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상적 숙련도에 있어 3~5년 차 스태프를 선호하는데 앞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개원을 하고 동네치과 원장이 되니 구인난을 절실히 느낀다. 내 치과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면 구인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5인 이상 치과의 경우 내일채용공제를 통해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일정기간이 지나 재취업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악용해 치과를 쇼핑하듯 옮겨 다니는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치과위생사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치과 임상에 투입되는 보조 인력에 대한 업무범위 재설정, 인력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다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유시은 기자 sion@dailydental.co.kr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치과계에 홍보대사 역할에 힘써준 치의신보가 창간 53주년을 맞이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독자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로 신뢰받는 신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소침습용 임플란트 전문기업 **IBS IMPLANT**



동상이몽 인터뷰

치과위생사의 시각 '97년생 최수진' 나의 치과 선택기

원장 성향 천차만별, 직원 알력다툼 경계
가치 인정받고, 병원분위기 좋으면 'OK'

최수진 씨(가명)는 수도권 모 대학 치위생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얼마 전 본 국시를 자신 있게 치렀으니 이제 곧 결과가 나오면 바로 취업할 계획이다.

3년 전 입시에서 취업률과 전문자격증 취득 기회를 보고 선택한 치과위생사란 길. 요즘 치과 구인·구직사이트를 보며 '정말 일자리는 많구나'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디 가서 당당히 얘기하기 망설여지는 연봉, 현장실습을 나가 겪은 트라우마, 또 앞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길에 대한 고민이 많다.

최수진 씨는 "딱상 취업을 하려 하니 돈만이 중요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어디를 가든 치과위생사 초임은 비슷하게 형성돼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치과는 다소 급여가 높기도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며 "실습을 나가 고생했던 경험을 생각하면 치과의 분위기,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려 하는데, 면접이나 단편적인 분위기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씨가 몇 번의 실습을 나가며 겪었던 어려움은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 업무를 가르쳐 주거나 지시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 간 알력다툼도 보이기 시작하더라

는 것. 실습을 다녀오고 '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다.

최수진 씨는 "여러 부분을 고려하면 신입 치과위생사의 입장에서는 치과병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연봉도 치과의원에 비하면 높은 편이고, 일을 배우기에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췄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실제 학교에 취업 설명회를 나오는 치과병원들을 보면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직원복지와 관련해서는 연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유롭게 휴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 수가 많은 치과병원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최수진 씨는 치과의 스태프 구성에 있어서도 치과병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다. 치과위생사만으로 스태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인데, 치과위생사들 사이에서는 치과 스태프 구성에 조무사 인력이 섞여 있는 경우 취업을 꺼리게 되는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실장업무를 조무사가 보고 있는 치과는 기피대상 1호라는 귀퉁이다. 직역 간 자존심 문제 등이 불거져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고,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어 누가 뒀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무조건 제시해야

최수진 씨는 얼마 전 먼저 이 일을 하면서 친해진 선배들과의 수다에서 나온 얘기도 들려줬는데, 치과위생사들이 꺼리는 치과는 ▲면접 자리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원하는 연봉과 복지혜택을 물어보는 경우 ▲갓 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가 신규 개원한 치과 ▲부부치과나 원장 사모님이 나오는 치과라고 했다.

특히 원장이 먼저 근무조건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치과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며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젊은 원장님이 개원한 치과는 직원관리에 서 시작해 환자 수 확보의 어려움, 이에 따라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였다.

특히, 부부가 모두 나오는 치과의 경우 부부 싸움을 한 날 병원 분위기가 특히 좋지 않는 등 남의 가정사에 직원들의 감정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 꺼린다는 것이다.

최수진 씨는 "주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치과를 가야할지 고민이 끝이 없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후

“
현장실습트라우마
선배 이야기 들으면
고민 커져
...
신규개원, 부부치과
부인 근무하는 치과
꺼리게 돼
”

에는 연봉이 오르지 않고 나가라는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최종적으로 내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치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병원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급여가 높지 않아도 오래 다니고 싶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다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0년 1월부터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사용 가능" 발표

SDI YOUR OUR SMILE. VISION. AUSTRALIAN MADE

gs-80

[마지막 특가!]

1.기계 구매조건
582,000원
gs-80 1 spill 1봉
+ Ultramat S(캡슐혼합기)

2.기계 무상대여조건
898,000원
gs-80 1 spill 7봉 + 2 spill 2봉
+ Ultramat S(캡슐혼합기)



高銅 28.7%
캡슐형
아말감



D CUBE (주)덴탈큐브 재료문의 02. 2219. 4567

"재료 구입 문의는 가까운 재료상에 연락해주세요."

gs-80 사용동영상



(사)한국 MEAW 교정연구회 주관

21st MEAW Advanced Course 모집

2020년 2월부터 시작되는 21기 MEAW Advanced Course 를 함께 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교정치료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을 위한 심화과정의 코스입니다.

#1년의 코스기간 동안 밀도있고 심도있는 스케줄이 진행됩니다.

개원의 선생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토요일 세션을 오후부터 야간에 진행토록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별도의 continuing education program을 진행하여 코스에 더욱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강의연자



정운남 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수련
 일본 가나가와 대학 치과교정학 박사
 청담운 치과의원 원장
 한국 MEAW 교정연구회 부회장

지원대상 MEAW concept과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학을 연수하고자 하는 교정치료 유경험자

강의일시 ① 2월 8,9일 ② 3월 7,8일 ③ 4월 4,5일 ④ 5월 9,10일
 ⑤ 6월 13,14일 ⑥ 7월 4,5일 ⑦ 9월 12,13일 ⑧ 10월 10,11일
 토 : 오후 4시30분 ~ 10시, 일 : 오전 9시~오후 5시
 (연구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장소 한국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강남구 서초동 소재)

등록마감 2020년 1월 31일 까지

등록문의 한국 MEAW교정 연구회 사무국 Tel. 02)3443-6876
 백인정 선생님 HP. 010-3069-7110

TABLE OF CONTENTS

- Cephalometric Tracing and Analysis
- ODI/APDI/Combination Factor
- Study Model analysis
- Biomechanics of Tooth Movement
- Class I, II & III Extraction Treatment Strategy
- Class I, II & III Non-Extraction Treatment Strategy
- Openbite & Deepbite Treatment Strategy
- 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Strategy
- Use of Skeletal Anchorage System
- Use of Self-Ligating Bracket
- Wire bending Exercise
- Student Case Analysis & Tx. Planning

8th MEAW Theory Course 모집

2020년 2월부터 시작되는 8기 MEAW Theory Course를 함께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MEAW Philosophy의 흐름을 이해하고, 복잡한 임상적응에 선행하여 기초를 다지며, MEAW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교정치료의 경험이 없는 분을 위한 기초코스뿐 만 아니라 교정유경험자도 같이 아우르는 중급과정입니다. 또한 개원의 선생님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토요일 세션을 오후부터 야간에 진행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강의연자



최낙준 원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수련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박사
 최낙준 치과의원 원장
 한국MEAW교정연구회 회장

지원대상 MEAW concept과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학을 배우고자 하는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초심자, 혹은 교정치료 유경험자

강의일시 ① 2월 1,3,29일 ② 3월 1일 ③ 4월 11,12일 ④ 5월 2,3일
 ⑤ 6월 6,7일 ⑥ 7월 25,26일 ⑦ 9월 5,6일 ⑧ 10월 31일 ⑨ 11월 1일
 토 : 오후 4시30분 ~ 10시, 일 : 오전 9시~오후 5시
 (연구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장소 한국 MEAW 교정연구회 세미나실(강남구 서초동 소재)

등록마감 2020년 1월 31일 까지

등록문의 한국 MEAW교정 연구회 사무국 Tel. 02)3443-6876
 백인정 선생님 HP. 010-3069-7110



사단법인 한국 MEAW 교정연구회 회장 최낙준

임금, 복지, 업무분장, 관계, 신뢰 5개 키워드 활용해 '신의 직장' 만들자

■ 스태프 걱정 없는 치과 채용·관리 솔루션

치과 스태프 구인난을 바라보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시각차는 충분히 살펴봤다. 다음 단계는 해결방안 강구다. 직원관리 시스템을 잘 갖춘 치과병원, 원장과 사모의 아이디어로 구인난을 극복했던 치과, 치과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을 통해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될 팁을 모아봤다. <편집자 주>



연차별로 정확하게

사실 임금과 여러 복지 제도에 있어 전문가의 첫 조언은 '법적 기준 이상을 제공하라' 였다. 최저임금에서 시작할지 그 이상을 줄지는 개별 원장들의 선택이지만, 연차별로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임금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의 한 치과병원의 경우 입사 시 향후 20년간 연봉체계, 휴직 후 복귀 인력에 대한 임금체계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장기적인 임금체계의 제시는 직원 신뢰를 위한 첫 걸음이다. 또 직원들 간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인센티브제는 지양해야 한다. 직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충족조건을 바탕으로 일괄적인 임금체계를 운영하되, 이 외에 '플러스알파'로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요소로 넣고, 직원 간 안배도 고려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환자의 동의를 당장 얻지 못했어도, 환자에게 직원이 친절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이 부분을 인정해 줄 때 직원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가.



자유로운 연차 활용

현장의 치과위생사들이

뽑은 가장 대표적인 복지는 '자유로운 연차 활용' 이었다. 이제는 원장이 설 때 같이 쉬기를 고집해선 안 된다. 연차제도만 잘 활용해도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다. 연차 운영에 있어서는 자신의 치과가 5인 이하라 해도 사회의 통상적인 연차제도를 준용할 것을 권장했다.

어렵겠지만 '기본 인력 수+'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최소 가용 인원보다 한명 더 많은 스태프진을 꾸려 직원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단, 구해지지 않는 치과위생사를 무조건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임상보조 외 치과위생사의 기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 파트타이머, 치과 자체의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다. 경력 20년 차의 한 치과위생사는 "직원 간 눈치 보지 않는 형평성이 담보된다면 1년에 한 달 정도 무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고의 복지는 '시간을 주는 것' 이라는 의견이다.

연차 외에는 지방출신을 위한 기숙사나 식대제공, 여가활동비 지원 등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떠한 지원이든 직원 간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출신 치과위생사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이를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직원들을 위한 지원도 함께 있어야 나중에 불만이 표출되지 않는다. 회식의 경우 '원장 본인은 가지 말고 카드만 보내라'는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이다.



Q&A제작 활용도 높아

애매한 업무분장은 직원들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실장급 등 관리직원에만 인력관리를 맡기지 말고 원장 스스로 직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분장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인 기준과 수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 후에는 개선요구나 지적보다 평가 결과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23면에 계속>

“ 연차별로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임금체계 제공해야 ... ”

애매한 업무분장 직원간 갈등의 불씨 객관적 기준·수치로 평가할 수 있어야 ”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 | | |
|----------------------------|--------------------|-----------------|-----------------|
| 중앙회 회장 홍옥녀 | 인천시회 회장 고현실 | 법제이사 김미현 | 기획이사 최종현 |
| 중앙회 수석부회장 김길순 | 대전충남회장 정해자 | 법제이사 정삼순 | 정책이사 유미성 |
| 중앙회 부회장 임선영 | 경기도회장 김부영 | 학술이사 신숙화 | 정책이사 조명희 |
| 중앙회 부회장 정재희(광주전남회장) | 강원도회장 정명숙 | 학술이사 정은숙 | 정책이사 노윤경 |
| 중앙회 부회장 하식(울산경남회장) | 충북도회장 연영미 | 재무이사 최경숙 | 구체이사 김진석 |
| 중앙회 부회장 곽지연(서울사회장) | 전북도회장 최영란 | 사업이사 김치화 | 감사 송재숙 |
| 중앙회 부회장 최승숙 | 경북도회장 이종잠 | 사업이사 박명숙 | 감사 김순홍 |
| 중앙회 부회장 주춘희(부산사회장) | 제주도회장 김희자 | 사업이사 김금옥 | 감사 신경란 |
| 대구시회 회장 한유자 | 총무이사 김미현 | 공보이사 노경환 | 감사 김홍점 |

PREMIUM

Jaw Care System

《 턱관절 보험청구 단순, 전기, 복합자극요법, 분사신장요법 》



LASER PHL-15
(퍼펙트 힐링 레이저 & 적외선)
●보험 U2381(가-단순자극요법)
●보험 U2383(다-복합자극요법)

턱관절
장애

세포재생

빠른힐링

통증완화

Care
Time

염증감소



SONO (초음파)
●보험 U2381
(가-단순자극요법)



TENS (저주파자극기)
●보험 U2382
(나-전기자극요법)



냉각스프레이
●보험 MX032(분사신장요법)
★인증기관 없이 모든 치과
보험청구가능



환자상담용
턱관절 모형

“치과스텝 채용·관리 10계명 실천하세요”

〈21면에 이어 계속〉

임상이나 행정업무에 있어 빈도수가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에 힘들더라도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단순 충전에서 임플란트 수술에 이르기까지 각 진료별로 필요한 준비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매뉴얼로 만들었다니 초보 스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고, 퇴사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직원과의 최초 고용계약 시, 근로조건 설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인사체계와 노무, 임금, 휴가체계 등 직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모든 것을 'Q&A' 형태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크다는 조언이다. 또 이는 나중에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 시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허용한계 정확히 설정

치과의사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의사와 직원 사이에 있어서는 원장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 제시할 때 직원들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를 할 때 수월함을 느낀다.

또 직원 간 갈등 시에는 '잘못한 직원'을 정확히 판별하고 책임을 묻는 용기가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은 '문제의 발단이



치과 스텝 채용·관리 10계명

- 1 '임금·휴가' 법적 최소기준 이상을 제공하라
- 2 돈이 전부야 아니다. 내 치과만의 메리트를 만들어라
- 3 직원이 원하는 복지를 파악하라
- 4 직원 복지·대우 '형평성 원칙'을 지켜라
- 5 선발이 어려워도 치과의 원칙 인정하는 직원을 뽑아라
- 6 멀티 플레이어보다 한정된 업무의 전문가를 키워라
- 7 되고 안 되는 것의 경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 8 실정에만 맡겨선 안 된다. 하위문화를 파악하라
- 9 직원 갈등 방관은 금물, 문제를 찾아 해결하라
- 10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을 절대 하지 마라

〈도움말: 로먼치과그룹〉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아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원장 앞에서의 행동과 직원들 앞에서의 행동이 다른 직원을 발견 시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나머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직원 간 문제 발생 시 절대로 방관은 안 된다.

전문가는 "원장의 눈에만 보이는 상 위문화 뿐 아니라 실장이 관리하는 하위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되 일상적인 간섭이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라포 형성유지도 필수

마지막 키워드는 '라포(신뢰관계)의 형성과 유지' 부분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같

는다'라는 말이 있듯 말 한마디로 진짜 능력 있고 좋은 직원을 날려 버릴 수도 있다. 근거 없는 화나 독설로 직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모든 취재원의 공통된 조언이다.

아울러 구인광고 시 지나친 저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 '환자 적음, 퇴근 빠름' 등의 네거티브 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직원의 다음 행보는 편하다. 한 치과위생사는 치과선택 이유를 묻자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 생일파티 사진이 화목해 보여서'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 경영지원회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 한명의 직원을 교체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160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 조금 더 보태면 신입 치과위생사 연봉 수준"이라며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돈보다 시간과

“
근거 없는 화난 말로
직원자존심
건들기 금물
...
잘못한 직원 판별
책임 묻는 용기 필요
”

여유를 쫓는 것이 트렌드다. 특히, 언제든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치과 개원 시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병원이 줄 수 있는 메리트를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선택하는 직원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만의 스텝 관리 노하우를 공개한 한 원장은 "많은 연봉을 요구하며 일 못하는 스텝은 봤어도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 잘하는 스텝은 못 봤다. 신입 치과위생사 채용 시 숨은 능력을 알아보고 이를 끌어내는 노하우, 그리고 이런 스텝에 대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좋은 직원을 알아보는 기준은 확실하다.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닌 사람보다 한 병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확실히 일을 잘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다. 이런 사람은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줘서라도 붙잡고 싶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사 장 김철환	기 획 이 사 권민수	기 획 이 사 박관수	기 획 이 사 이덕원	전 문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이부규
감 사 김일규	기 획 이 사 김기정	기 획 이 사 박봉욱	기 획 이 사 이은영	교 과 과 정 위 원 회 위 원 장 권용대
감 사 윤규호	기 획 이 사 김문영	기 획 이 사 박상준	기 획 이 사 이의석	의 료 감 정 및 장 애 평 가 위 원 회 위 원 장 김수관
총 무 이 사 김형준	기 획 이 사 김민근	기 획 이 사 박인숙	기 획 이 사 이일구	치 아, 뼈, 줄 기 세 포 은 행 위 원 회 위 원 장 이정근
학 술 이 사 박홍주	기 획 이 사 김봉철	기 획 이 사 박주용	기 획 이 사 이정우	회 칙 및 규 정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차인호
편 집 이 사 이원	기 획 이 사 김선종	기 획 이 사 백진아	기 획 이 사 이지호	보 험 수 가 개 선 및 신 기 술 개 발 위 원 회 위 원 장 임요한
공 보 이 사 표성운	기 획 이 사 김영수	기 획 이 사 변준호	기 획 이 사 임대호	임 플 란 트 임 상 연 구 위 원 회 위 원 장 엄인웅
국 제 이 사 권대근	기 획 이 사 김용덕	기 획 이 사 성일용	기 획 이 사 전상호	윤 리 및 연 구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양수남
정 보 통 신 이 사 신상훈	기 획 이 사 김재진	기 획 이 사 손영휘	기 획 이 사 지영덕	교 과 서 편 찬 (개 정) 위 원 회 위 원 장 이재훈
재 무 이 사 한세진	기 획 이 사 김중엽	기 획 이 사 안강민	기 획 이 사 지유진	해 외 임 상 교 류 위 원 회 위 원 장 오희균
보 험 이 사 허중기	기 획 이 사 김좌영	기 획 이 사 양병은	기 획 이 사 최소영	편 집 위 원 장 김영균
홍 보 이 사 권경환	기 획 이 사 김진욱	기 획 이 사 오민석	기 획 이 사 팽준영	구 강 암 연 구 소 소 장 최성원
교 육 수 련 이 사 권용대	기 획 이 사 김철훈	기 획 이 사 유재식	기 획 이 사 홍성욱	
섭 외 이 사 정영수	기 획 이 사 류재영	기 획 이 사 윤필영	기 획 이 사 황종민	
기 획 이 사 국민석	기 획 이 사 문성용	기 획 이 사 윤현중	기 획 이 사	



김영준 전 회장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의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먼 미래의 상징이었던 그 해를 현실로 맞이하는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2020년에 대한 상상과 예측은 예전부터 다양각색이었다. 어떤 이는 자동차가 날아다닐 것이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달나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건설될 것이라고도 했다. 2020년을 너무 먼 미래로 여긴 탓인지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제조·건축 기술 등의 성장에 역점을 두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해 형성된 가상 네트워크의 세계는 보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소통 방식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단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문화가 함께 변화하는 본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느낌을 받게 되니 문득 20년 전의 이맘때가 떠오른다. 세계의 종말이 온다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아

무 일 없이 지나갔고, Y2K로 불리던 밀레니엄 버그로 인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큰 문제없이 지나갔었다. 이외에도 새 시대에 대한 각종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잘 이겨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다. 비교해보면 2000년을 맞이했던 때는 과거 시대에서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의지가 느껴졌는데, 2020년을 앞둔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발전된 사회가 최첨단 미래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다.

2020년에 대한 예측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은 아니다.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양상이 이어져오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산업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환경이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 자원고갈, 방사능 등 그 결과가 고스란히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아직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고, 양날의 검이라 불리는 원자력 에너지로 인한

방사능 문제나 정보와 자본에 대한 접근성 격차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등 새 시대에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새해가 갖는 미래에 대한 상징성은 과제 해결에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게 된다면, 진부한 것을 이겨내고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선택할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고쳐야 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처럼 당연시되어 개선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2020년을 앞둔 지금 최첨단 미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타성에 젖어 이유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새해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상을 갖게 된다면 건강한 발전을 향한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눈앞의 실적을 내기에 급급한 단편적인 개발에서 벗어나고 환경과 인류 모두를 고려한 발전을 목표로 삼는다면,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치의신보
dailydental.co.kr

빠른소식, 풍성한 읽을거리
필요한 치과 정보,
치과의사 독자분들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치의신보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ISTRY

2020

월간 KJCD 저널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공존합니다.
2020 새로운 필진 선생님들을 모시고 설렘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매월 만나는 KJCD On-line Seminar
MiNi Channel / 3

- 보 철 · 성무경(목동 부부치과의원)
- 치주/임프란트 · 함병도(카이노스치과의원)
- 엔 도 · 이승준(서울 하이안치과의원)
- 세 무 · 정오현(세무법인 진영)
- 레진 · 김선영(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보존과) | 국소의치 · 이관우(린치과병원)
- 교합/보철 · 정현근(호주 시드니 개원) | 엔도 · 곽영준(연세자연치과의원)
- 임프란트 · 김정찬(동대문치과의원) / 허인식(허인식치과의원) / 현동근(플란트서울치과의원)
- 치주 · 임현창(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치주과)
- 임프란트/교정 협진치료 · 박철완(보스톤 원치과의원)
- T.M.D/약처방 · 조상훈(조은턱치과의원)
- 교정 · 허성수(굿스마일 교정치과의원)
- 디지털 CAD/CAM · 한종목(명학하나치과의원)

더블패키지 이벤트 월간 KJCD 구독신청(연장)과 단행본을 함께 하시면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02-926-3682 | 월간지 정기구독료(1년 17만원/연장 16만원) | 입금 : 317-0013-7678-31(농협)/(주)치과계

정필훈 교수, 옥조근정훈장 수상

안면기형 성형재건수술법 개발 등 치의학 발전 기여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정필훈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안면기형환자 성형재건수술법 및 풍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등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일 엘타워 매리골드홀에서 '2019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필훈 교수를 비롯한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등 4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제18회를 맞는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 및 보건산업 육성·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이날 수상자 41명 가운데 우수연구로 가장 큰 상을 수상한 정필훈 교수는 버



정필훈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2019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려지는 치아를 활용한 풍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고, 안면기형환자 성형재건수술법을 개발해 국내 치의학 발

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1998년부터 20여 년간 세계 15개국 861명의 국제 구순열 환자 무료 수술 봉사에도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필훈 교수는 "올해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등 41명의 수상자 가운데 가장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가 안면기형환자 성형재건수술법 및 풍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치과계도 의료계 이상으로 연구 수준이 뛰어나고 임상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교수 외에도 최성환 연세치대 교정과 교수가 신진연구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 교수는 치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치과생체재료 후보물질 발굴 및 지속성 평가연구를 수행(쓰비터 이온을 활용한 세균성 치태의 억제 및 새로운 치과생체재료 연구개발 수행)한 공로가 인정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오페라 갈라쇼로 기해년 마무리

서여치, 송년의 밤 성료



서여치가 '2019 송년의 밤'을 지난 12일 헤리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서울여자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서여치)가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한해를 마무리했다.

서여치가 '2019 송년의 밤'을 지난 12일 헤리츠컨벤션센터 아그니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박인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송년회는 1시간가량 이어진 M Cultures(단장 신금호)의 오페라 갈라쇼 '오페라로 사치하라'와 경품추첨 및 기념 사진촬영 등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다.

특히 M Cultures의 오페라 갈라쇼는 카르멘 투우사의 노래, 세르비아의 이발사, 돈 조반니 세레나데 이중창, O Sole Mio, 줄리엣 왈츠 등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와 함께 제공해 청중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았다.

장소희 서여치 회장은 "오늘은 묵묵히 가정과 치과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회원들에게 칭찬과 응원을 드리는 자리"라며 "서여치에서는 앞으로도 회원 단합과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장소희 회장이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강력한 지도력으로 서여치를 잘 이끌고 있다"며 "30대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여성회원들의 지위와 참여를 올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임 대여치 회장은 "작년에는 색다른 분위기로 우리를 즐겁게 해준 서여치가 이번 송년회에서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앞으로 여성 회원들 간 소통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사은 기자 sion@dailydental.co.kr

치과윤리 회복 "여기에 답이 있네!"

이철규 원장 '치과임상윤리', 김준혁 교수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치과의사 윤리회복 문제가 최근 치과계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에 애착을 갖고 연구해 온 치과의사들의 저서가 '2019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돼 눈길을 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9 세종도서 학술부문' ▲기초과학분야에 이철규 원장(이철규·이대경치과의원)의 저서 '치과임상윤리-전문직업인 의무와 실무 적용(명문출판사)'과 ▲사회과학분야에 김준혁 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 교수(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문학동네)'가 이름을 올렸다.

이철규 원장이 올해 4월 번역해 출간한 '치과임상윤리'는 데이비트 T. 오자르 등 치과윤리학의 거장들이 저술한 세계적인 명저로, '환자와 전문인과의 관계', '부적절한 사회 의료시스템과 정의의 문제', '비즈니스로서의 치과계' 등과 같은 치과진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상황을 짚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준혁 교수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작가가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칼럼 '김준혁의 의학과 서사'에 실렸던 글들을 보완해 묶은 것으로, 연명의료, 의료분쟁, 의료광고, 인공지능 등의 의료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논제들을 영화나 소설 등 흥미로운 콘텐츠에 나오는 사례들을 게재했다.

이번 선정된 도서들은 내년 2월까지 전국의 공공도서관 850여 곳에 배포된다.

이철규 원장은 "치과임상윤리의 번역 발간은 저 개인적으로 오랜 꿈을 이룬 것이기도 하고, 치과계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계는 현

재 프로페셔널리즘과 상업주의의 기로에 서 있다. 사회 공동체는 치과계의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프로페셔널에 합당한 존경과 신뢰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답을 해야 하고 걸맞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세종도서목록에 선정된 것은 학술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가 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교수는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치과대학과 병원 수련, 이후 진료에서 막연하게 느꼈던 염려를 풀어 내려는 시도였다. 의학철학과 의료윤리를 공부하고 서사를 통한 의학 변화를 약속하는 서사의학이란 분야를 파고들면서 이를 일반인과 의료인, 학생 모두에게 설명하고 싶었다"며 "우리가 현대 의학이라는 제도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했다. 책을 세종도서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 그리고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진 책과 강의로 찾아뵙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2019 수출의 탑 수상 감사 Promotion



차오름 임플란트

2019 LAST CHANCE

차오름 임플란트의 모든 것

- PT Fixture
- Abutment
- Dental Glove
- Mask
- Surgical Glove
- Drill KIT

50%



- CCS BIOSHAPE
- Reverse Conical Neck
- Variable thread thickness and thread depth
- Innovative Thread Design
- Spiral Cutting Edge
- Apical Design



“2019년 메디메카 **홍합접착단백질** 원천 기술 확보”

홍합접착단백질이란?

- 홍합이 족사(足絲)라는 접착단백질을 분비해 단단히 붙어 자라는 성질을 이용
- 높은 접착력, 낮은 친수성, 낮은 표면장력을 가져 탁월한 물리적 특성 보유
- 이종골이식재에 수정된 홍합접착제를 적용 시 골재생 촉진 효과 확인

기술 특징 및 기대 장점

- 이전 세대 기술 대비 높은 초기 고정성
- 높은 골유착성으로 시술 시간 단축
- 자연 유래 단백질로 생체적합성 향상
- 이식 성공률 향상으로 환자 만족
- 인체 부작용 현저히 저감

벤처투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출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 (예시 : 투자금액 3,000만원 : 소득공제율 100%, 투자금액 5,000만원 : 소득공제율 70%)

대리점 모집 대구, 대전, 광주

www.medimecca.co.kr 02-6933-9163

치주과학회 차기회장에 허익

확대이사회 열고 선출
“내실 있게 정진할 것”

허익 경희치대 치주과 교수가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이하 치주과학회) 차기회장 자리에 올랐다.



허익 차기회장

치주과학회가 지난 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남촌강의실에서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확대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명예회장, 회장, 감사 및

시·도지부장 등 학회 임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진행한 결과, 현 부회장인 허익 교수가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허 교수는 지난 22년간 치주과학회의 여러 이사진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의 학회 활동을 경험했고, 부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허 교수는 “어느 자리를 맡을 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고심하는 편이다.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실 있는 정진”을 신조로 내적 가치를 향상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AAOT 신임회장 김연중 선출

임기 2년 아시아 학회 리딩
2020 한국대회 개최 기대

김연중 원장(아림치과병원)이 아시아 구강안면통증 턱관절장애학회(이하 AAOT)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연중 신임회장

김연중 신임회장은 지난 10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9회 AAOT 학술대회 이사회에서 회장에 선임돼 향후 2년 동안 회장직을 맡게 됐다.

특히 임기 중인 내년 10월 31일과 11월 1일에는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안형준) 주관으로 제20회 AAOT가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의미가 깊다.

AAOT는 AAOP(북미), EACD(유럽), AuACD(호주), ILACD(남미) 등 5개 대륙 학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구강안면통증 측두하악장애학회(ICOT)의 아시아 대표 학회로, 지난 1988년 아시아두개하악장애학회(AACMD)로 발족했으며, 2018년에는 AAOT로 학회 명칭을 개정한 바 있다.

윤성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문화·학술교류 프로그램 만들 것”

경희치대·가고시마치대 MOU

경희치대가 일본 가고시마치대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경희치대(학장 권공록)와 일본 가고시마치대가 지난 11월 28일 경희치대 교수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했다.

이날 경희치대에서는 권공록 학장, 이규식 교무부학장, 박기호 치의학과장, 문지희 치의예과장, 배아란 국제교류실장, 김경아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으며 가고시마 치대에서는 Shouichi Miyawaki 학장과 권상호 치과교정학교실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는 경희치대 소개 영상에 이어 권공록 학장의 초대인사말, Shouichi Miyawaki 학장의 답사 및 가고시마치대 소개, MOU 서명 등이 진행됐다.

이 밖에 기념품 교환, 사진촬영, 환영



경희치대와 가고시마치대가 지난 11월 28일 경희치대에서 MOU를 맺었다.

만찬 등 양 대학의 친교를 다지기 위한 행사가 이어졌다.

권공록 학장은 “해외 교류가 활발한 일본 가고시마 치대와의 MOU를 계기로 문화적 교류와 더불어 학문적

으로 학술연구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서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시은 기자 sion@dailydental.co.kr

남북 화합 기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이 개최된 가운데 최치원 부회장(사진 오른쪽)이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지난 3일 서강대학교 곤자가 컨벤션에서 남북한 화합을 기원하는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철수 협회장 대신 최치원 부회장이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함께해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날 행사는 소망재활원 ‘천사들의 하모니’ 공연으로 시작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과 여러 내빈들의 축사, 사업 보고와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핸드폰의 보편화를 비롯해 변화를 향한 북측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난해 11월 방북 당시 소감을 전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치과, 방역, 농기계 등 북측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한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신년 결의를 다졌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1996년 설립된 한반도평화공동체로 남북한 갈등해소와 우리사회 평화문화 확산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캄보디아서 500건 진료하며 ‘구슬땀’

대여치, 4일간 258명 환자 치료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제9차 해외진료봉사를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간 캄보디아 파일린주 메디컬센터에서 진행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가 캄보디아 진료봉사를 통해 온정을 나눴다.

대여치가 제9차 해외진료봉사를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간 캄보디아 파일린주 메디컬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대여치 허윤희 고문, 황혜경 기획홍보이사, 이수정 학술이사,

정유란 공보이사뿐 아니라 장소희 회장, 신지연 총무이사 등 서여치 임원진과 김선미 원장, 이아현 원장 등 개원의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봉사단은 나흘 간 총 2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복 224건, 발치 182건, 스케일링 54건, 근관치료 39건, 구강검사 15건 등 총 514건의 진료를 수행했다.

특히 10살이 채 안된 학생이 제1대 구치가 잔존 치근 형태로만 남은 경우부터 어금니에 구멍이 나거나 앞니가 썩어버린 경우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처치했다.

허윤희 고문은 “학령기 때 집중 치아관리와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진료봉사는 초등학교 한 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복·예방 치료와 교육을 펼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유시은 기자 sion@dailydental.co.kr



치과용 3D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한눈에 본다

식약처, 임플란트·임시치관용 레진 가이드라인 발간
허가·인증·신고 절차부터 성능평가·시험방법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임플란트와 임시치관용 레진의 제품화를 돕는 가이드라인이 최근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가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 및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경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 및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 위해 최신 국제동향이 반영됐다. 게재된 내용은 ▲허가 인증 신고 절차

및 항목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것을 고려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 및 시험방법 등으로 주요 예시와 함께 안내돼 있다.

치과용 의료기기는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맞는 맞춤형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조금만 어긋나도 상당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꼭 맞는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신제품 개발이 활발한 분야라고 식

약처는 소개했다.

특히 식약처는 "100세 시대에 내게 꼭 맞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과용 제품의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 마련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

큐어링 라이트·조도 측정계 '증정'

리뉴메디칼, 엔도팩스 구매 시 특별 프로모션 진행

(주)리뉴메디칼에서 연말 'Endo@Pex'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Endo@Pex + APEX는 무선형 복합 퍼펙트 근관 충전 시스템으로 Pen과 Gutta Easy로 구성돼 있다. Pen(friendo)은 매우 가벼울 뿐 아니라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지 않고 실리콘 커버로 우수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술이 용이하다. 또한 간편한 디스플레이와 조작법 5가지의 다양한 TIP 사이즈로 사용자의 편의를 맞췄다.

Gutta Easy(gun type)는 내구성이 우수한 Needle Tip의 360도 회전형으로 기존 타제품들에 비해 2-3배 짧아져 대략 25-32초 정도 가열시간이 단축됐으며 170°, 200°, 220°의 다양한 온도세팅

이 가능하다. 현재 리뉴메디칼에서는 2019 연말 행사상품으로 엔도팩스를 구매 시 타이탄 큐어링 라이트와 조도 측정계를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프로모션이 주목받으면서 현재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뉴메디칼 관계자는 "이번 행사 상품인 엔도팩스는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상가들이 크게 만족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편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한 제품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1588-4694. 윤선영 기자



인비절라인 '밝은 미소 응원' 캠페인

2월 29일까지... 할인쿠폰 이벤트



활짝 웃지 못했던 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선사하기 위한 캠페인이 펼쳐진다.

투명 교정장치 브랜드 인비절라인이 '너의 밝은 미소를 응원해' 댓글 캠페인을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치아 교정에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아 교정 후 하고 싶은 바람을 온라인에 댓글로 다는 이벤트로, 고르지 않은 치열로 활짝 웃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자신 있는 미소를 선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댓글을 작성하면 30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인비절라인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치

열 교정 중에도 심미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탈부착이 가능해 잇솔질과 치실 사용에 제한이 덜할 뿐만 아니라 6-8주에 한 번씩만 병원에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인비절라인 측은 "치아교정에 관심은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뜻 치과 방문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 '너의 밝은 미소를 응원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고르지 않은 치열로 활짝 웃지 못했던 사람들이 2020년을 밝은 미소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너의 밝은 미소를 응원해 댓글 캠페인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비절라인 홈페이지(www.invisalign.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시은 기자 sion@dailydental.co.kr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53

[경기권]
 부천미르치과의원 신홍식 대표원장
 서울미르치과의원 최진 대표원장
 수원미르치과의원 전창훈 대표원장

[전라권]
 광주미르치과병원 정찬길 대표원장
 목포미르치과병원 김영운 대표원장
 순천미르치과병원 이상택 대표원장
 전주미르치과병원 정희웅 대표원장
 첨단미르치과병원 정철웅 대표원장

[경상권]
 거제미르치과병원 윤성재 대표원장
 거창미르치과의원 박상준 대표원장
 경산미르치과병원 고대호 대표원장
 구미미르치과병원 이상화 대표원장
 뉴욕미르치과의원 박승엽 대표원장

[대구권]
 대구미르치과병원 권태경 대표원장
 밀양미르치과의원 김경환 대표원장
 진주미르치과병원 김성수 대표원장
 창원미르치과의원 박옥 대표원장
 포항미르치과병원 이경재 대표원장

미르치과 네트워크

메가젠 박광범 대표, 첫 'HEI Award' 수상

콜라겐 멤브레인보다
골재생력 30% ↑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확산 공로
내년 UN 본부에서 성공사례 발표

(주)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의 박광범 대표이사가 지난 11월 4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진행된 Humane Entrepreneurship Initiative(HEI) Award 2019 수상자로 선정됐다.

HEI는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이라는 뜻으로 지난 2016년 세계중소기업연합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이하 ICSB)가 UN 선언을 통해 천명한 "기업가가 꿈을 가지고 이를 구성원과 공유하면, 전 구성원은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가치와 고용 창출, 건강한 사회로 연결된다"는 것에서 출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의 확산을 통해 사람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모인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이다.



박광범 대표이사가 지난 11월 4일 'HEI Award'를 수상했다.

미국 오바마정부의 중소기업비서관을 지냈던 윈슬로우 살겐트 차기 ICSB 회장이 HEI Global조직(G-HEI)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직의 뜻을 키워가는 각국의 기업가들을 선정해 격려하고, HEI Award를 제정해 그 첫 수상자를 메가젠 박광범 대표로 선정했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헤르마

완 카르타자야 아시아중소기업연합회(ACSB) 회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임흥재 전 베트남대사, 김병화 김연장 변호사, 고문수 자동차부품협동조합 전무,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성명기 전 이노비즈협회장, 송창석 숭실대 교수, 임병훈 텔스타 헬멧 대표, 이종재 코스리 대표, 강성용 대한환경보건원 이사장,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HEI 측은 박광범 대표를 시작으로 각 나라별로 기업가 1인을 심사, 선정하여 시상이 진행되며, 이듬해 UN본부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대표는 "혁신의 원천은 구성원의 창의성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인의식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으로 경제 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관 기자 skcho@dailydental.co.kr

메가젠 LT6, 우수한 효과 각광



(주)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의 흡수성 멤브레인 LT6이 뛰어난 공간 확보력과 우수한 골재생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대체할 제품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LT6은 β -삼인산칼슘(β ?TCP)을 풍부히 함유한 점이 특징이다. β -TCP이 분해되면 칼슘 이온이 방출되기에, 콜라겐 멤브레인보다 골재생력이 30% 이상 빠르다. 또 수화 후 높은 강도와 탄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수분 또는 혈액 흡수 후에도 멤브레인이 접히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흡수성 멤브레인이라는 것. 뼈가 형성되는 동안 멤브레인이 체내에 유지돼 연조직 차단 및 골형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LT6이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최첨단 3D 프린팅으로 제작돼 골형성 및 이식재 고정에 유리한 내부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공극이 완벽히 연결되기에 세포의 침투성과 증식이 우수하고, 기존 조직과 융합 및 생착도 잘 이뤄진다.

LT6 멤브레인에서 줄기세포, 일차세포, 세포주 등 여러 유형의 휴먼세포를 3주 동안 배양한 결과, 모든 세포가 5~10배 증가하고 생존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1544-2285 최상관 기자

디오프로보 · 디오나비, 혁신적 솔루션 '기대'

디오, 보철학회 학술대회 참가

디오가 다양한 보철 분야 솔루션을 선보이며 임상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디오(대표이사 김진백)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 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82회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치과기자제 전시회에서 디오는 출력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개선한 3D 프린터 DIO PROBO(서지컬 가이드 28분, 싱글 크라운 16분, 모델 37분)와 디오나비, Final Prosthesis 복합소재 등을 선보였다.



디오가 제82회 대한치과보철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Final Prosthesis 복합소재는 심미적 · 기능적 · 구조적 측면에서 자연치아 특성에 가까운 생체적합 3D

Printing 복합소재로 디지털 3D프린팅 보철 시대를 열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업계 측은 전망했다.

이밖에 Ivoclar Digital사의 Programill PM7과 PM1, IDC사의 PL900S Milling Zone 등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했다.

김진백 디오 대표이사는 "디지털 보철 솔루션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내년 4월 3D프린팅 Final Prosthesis 소재 인허가가 완료되면 디오의 핵심 기술력이 보철 시장의 판도를 바꿀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은 기자 sion@dailydental.co.kr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53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	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설측교정치과의사회

1차 초도 물량 **전량 완판!**

사전 예약 접수 중



Magic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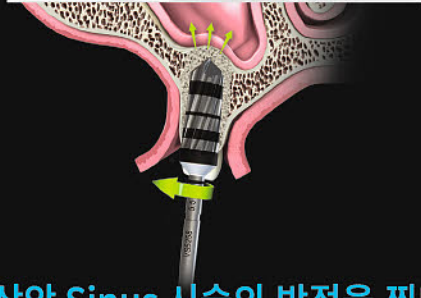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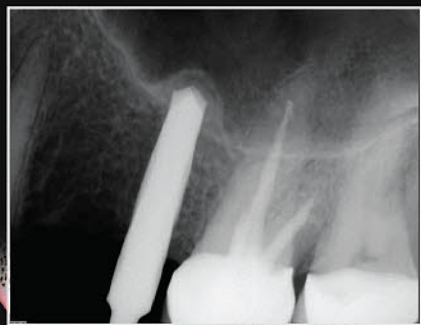
11월 런칭 이후 보여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초도물량 전량완판 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제품을 준비하여 사전예약하신 원장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미, 유럽 대세 Osseodens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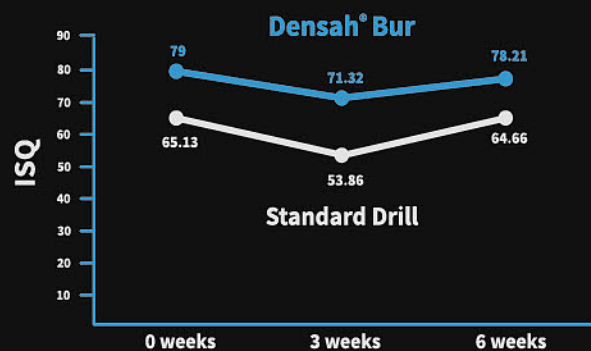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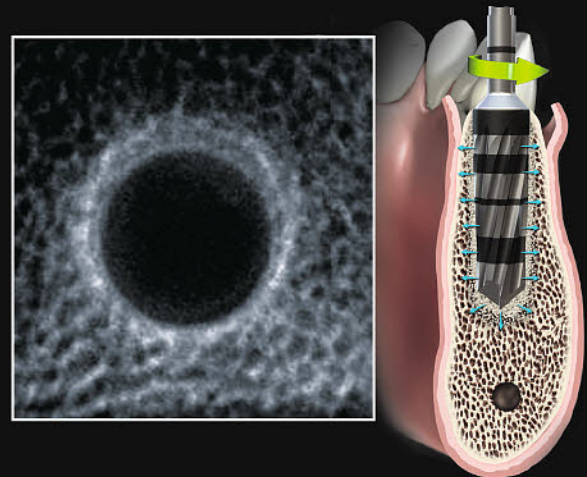
Densah[®] Bur by MEGAGEN

- 단, 1개의 Kit로 모든 Implant System 대응 가능한 Magic Kit
- 자가본을 D4→D2 Bone으로 만드는 놀라운 골치밀화 효과
- 보다 빠른 Spring back 효과로 식립즉시 상상 이상의 초기 고정력과 BIC 증가
- Sinus Lift시술도 가능한 다재 다능한 만능 Kit
- Ridge splitting 없이도 3mm ridge에도 4.2mm Fixture 식립이 가능



상악 Sinus 시술의 방점을 찍다!

Bur가 Bone을 밀면서 전진함으로 membrane 손상 염려가 없으며, 자가 Bone을 이용한 Auto-grafting 효과를 얻을 수 있음



D4 Bone에서도 Immediate loading 을!

자가 Bone의 Fresh 함은 유지한 채 주변 골치밀화로 Bone Density 향상

DDH, '디디하임 클리어' 본격 론칭

임상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교정 장치
AI 구강 상태 분석...진료 솔루션 지원

(주)DDH(허수복·이주한 대표)가 교정 전문의의 기술력이 결합된 진료 솔루션 '디디하임 클리어(DDHaim clear)'를 선보였다.

(주)DDH는 지난 12월 7일 서울 삼성동 JBK컨벤션홀에서 브랜드 론칭데이 행사를 개최, 디지털 덴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을 기업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DDH가 선보인 디디하임 클리어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 더욱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디디하임 클리어 사용 원리는 간단하다. 플랫폼에 클라우드에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구강 상태를 계측·분석한 뒤, 이를 교정과 전



(주)DDH가 지난 12월 7일 서울 삼성동 JBK컨벤션홀에서 브랜드 론칭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문의가 진단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진료 솔루션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DDH 디지털 교정 디자인센터에서는 교정 팀닥터와 교정전문 기공팀이 협업해 투명 교정 장치를 디자인하고 검수, 치료를 돕고 있다. 또 DDH가 선보인 투명 교정 장치는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소재를 사용, 강도와 탄성 회복력이 뛰어나 치아 이동 효과도

높다. 이와 함께 내구성이 강해 착용 중 파손과 표면 손상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한 대표는 "수많은 임상 케이스를 한데 모아 빅데이터를 구성해 교정의 들이 보다 시간적으로 빠르게 진료할 수 있다"며 "환자 솔루션을 디자인과 교정 장치 제작에 연결시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허수복 대표는 "성공적인 교정 치료는 진단이 핵심"이라며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앞으로도 DDH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 디지털 치의학을 선도하며 나아가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론칭데이에 참석한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는 "현재 우리 치과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역할이 확대되는 4차 산업 혁명에 진입하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과치료의 혁신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설립된 DDH는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치과 비즈니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 데이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업체로 알려졌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인공지능 'VAP' 개원가 상륙

〈의료전문 가상 비서 플랫폼〉

365일·24시간 고객 응대 가능
자율 접수·수납 시스템 '눈길'
와이즈케어, AI 서비스 도입

(주)와이즈케어(대표 송형석)의 의료전문 가상 비서 플랫폼(Virtual Assistant Platform, VAP)이 은평성모병원과 바로선병원을 거쳐 서울안심치과에 상륙했다.

와이즈케어는 지난 11월 29일 서울안심치과에서 AI 서비스 도입 발대식을 거행해 최첨단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진 개원가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 최초로 치과에 AI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에 공급된 AI 로봇은 ▲365일 24시간 고객 응대 ▲접수·수납·결제 시스템 탑재 ▲EMR 차트 정보를 활용한 고객 안내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병원 운영 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환자 및 직원 교육에서부터 사후 관리, 병원 홍보, 휴대폰 연결 등의 기능 또한 마련 돼 언제 어디서든 환자들의 편의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송형석 와이즈케어 대표는 "VAP의 목표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 소모를 줄이고, 나아가 차별성을 가진 병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목표를



와이즈케어가 세계 최초 치과AI 서비스를 서울안심치과에 도입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지고 있다.

전했다.

송 대표는 또 "VAP 개발에 박차를 가해 SIDEEX(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와이즈케어는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가상 비서 플랫폼을 제공 중이며 최근 은평성모병원, 바로선병원에 AI 솔루션 기반의 의료 및 환자 지원용 맞춤형 플랫폼을 공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캡슐형 아말감+메타기' 묶음구성 할인

대명실업, '울트라캡스 플러스+YDM-II' 특가

세계적인 수은 저감화 정책의 흐름에 따라 한국 치과병·의원도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은 캡슐형만 사용해야 하는 가운데, 고품질의 캡슐형 아말감과 아말감메타기를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대명실업(주)이 올해 마지막 특가할인 이벤트라 내세우며 캡슐형 아말감 'SDI캡슐(울트라캡스 플러스) 1R(7만7000원) + 2R(10만2500원) + 아말감메타기 YDM-II(GI겸용, 35만원)' 묶음 구성을 총 45만원에 공급한다.

또 아말감메타기 무상증정조건으로 '울트라캡스 플러스 1R 8봉(400캡슐)' 과 '울트라캡스 플러스 2R 2봉(100캡슐)'을 더해 82만1000원의 특별가에 제공한다.

보험청구 시 1R(L7233061)은 1,540원, 2R(L7233060)은 2,050원이 책정돼 있다.

울트라캡스 플러스의 높은 은 함량(은50%, 주석30%, 구리20%)과 낮은 수은함량(46.8%)은 다른 캡슐형 아말감과 차별성을 담보하며 강도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제품이다.

아말감메타기 YDM-II(제조:뉴질랜

아말감메타기 (GI겸용) ₩350,000 제조: 뉴질랜드

SDI 캡슐 1R+2R ₩77,000+102,500

₩450,000

드)는 캡슐형 아말감 및 캡슐형 GI 모두 호환 가능하며, 기기의 크기가 작아서 공간 활용도가 높다. 또 세련된 디자인과 적은 소음, 필름코팅 처리한 상단부 버튼 등 높은 안전성과 제품력을 보여 개원가에서 인기가 높다.

업체 측은 "좋은 제품들을 합리적 가격의 패키지로 구성했다. 아말감 치료의 비중이 높은 치과에 확실한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문의: 02-702-3001(010-7263-3131)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불산없어 안전한글라스세라믹 전처리제

에칭과 프라이밍 동시 처리, 시간 절반 단축

이보클라 비바덴트
'Monobond Etch & Prime'

새 상품

글라스 세라믹 보철물 전처리 시 에칭 단계에서 불산 사용이 필수였던 기존 술식은 불산의 유해성, 더 나아가 의료 환경에 위험성을 야기시켜왔다. 하지만 마땅한 대체품이 없던 가운데 이보클라 비바덴트가 'Monobond Etch & Prime'를 출시, 개원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Monobond Etch & Prime은 암모니아 폴리플루라이드를 사용한 에칭 방식으로 불산을 함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걱정을 덜어준다. 또 글라스 세라믹의 에칭과 프라이밍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동안 글라스 세라믹의 전처리를 위해 불산 에칭과 글라스 세라믹용 프라이머를 별도로 준비하며, 진행 과정이 복잡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Monobond Etch & Prime은 에칭과 프라이밍을 동시에 처리해 술식 과정을 줄여줘 기존 제품 대비 약 50%의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처리 과정은 글라스 세라믹 보철물 내면을 20초간 문지른 후 40초간 실온에 반응시키면 된다. 이후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면 내면 전처리가 마무리돼 약 1분 30초 만에 에칭과 프라이밍의 진행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마

무리할 수 있다.

또 강한 접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IPS Ceramic Etching 사용 후 Monobond N 처리 술식'과 비교해도 약 20% 더 뛰어난 접착력을 보여줘 임상적으로도 안정적이다.

Monobond Etch & Prime 하나만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글라스 세라믹 전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여러 부작용이 보고된 불산을 사용하지 않아 개원가는 물론 환자도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을 갖춘 제품이다.

한편, Monobond Etch & Prime은 이보클라 비바덴트의 공식 딜러사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잔존골 양 맞춰 선택 옵션 확보

식립 깊이 조절, 골 흡수 방지 장점

덴티스, 'SQ SHORT'

새 상품

(주)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이하 덴티스)가 숏 임플란트 신제품 'SQ SHORT'을 출시했다.

SQ SHORT 제품은 표면처리 구간을 4.5·6mm 3가지 사양으로 적용해 잔존골의 양에 따라 선택옵션 확보가 가능하다. 또 선명한 Machined Collar 구성으로 식립 깊이 조절의 시인성과 안전성을 높였으며, 안정된 연조직 반응으로 골 흡수를 방지하고

공격적인 Apex Design으로 Self-Tapping과 초기고정 확보에 용이하다.

아울러 덴티스는 숏 임플란트 식립 시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드릴링을 고려한 'SQ SHORT&WIDE KIT' 제품과 더불어 전용 Pre-milled Abutment를 함께 출시했다.

SQ SHORT&WIDE KIT 제품은 2.2 Straight Drill과 함께 4.0/5.0 Step Drill을 적용, 강력한 절삭력을 확보했다. 4.5·6mm Stopper를 적용해 드릴링 깊이 조절을 안전하고 쉽게



도와주며, Countersink Drill을 포함한 구성으로 다양한 드릴 시퀀스를 구현했다. 또 잔존골의 높이가 제한적인 경우에도 쉽고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구성했다. 특히 Counter Sink의 경우에는 'SQ WIDE' (6.0/7.0/8.0mm) 사양이 함께

구성돼 Wide 라인업을 식립할 경우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더불어 Pre-milled Abutment 제품은 Emergency Profile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Customed Abutment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티스 관계자는 "최근 숏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에 덴티스가 출시한 'SQ SHORT'는 수직적 골량이 부족한 케이스에 보다 쉽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 최신 임상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합성골 · 이종골 이식재 라인업 '강화'

뛰어난 골전도성, 견고한 신생골 형성

'스트라우만 신세틱'
'스트라우만 제노'

새 상품

세계적 임플란트 전문기업 스트라우만이 골이식재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합성골 이식재 스트라우만 신세틱(Straumann Synthetic)과 이종골 이식재 스트라

우만 제노(Straumann Xeno)다.

2016년부터 국내에서 이종골 이식재 세라본을 판매하던 스트라우만 코리아는 이번 제품 출시로 보다 다양한 뼈이식재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스트라우만 신세틱은 HA(수산화 인회석) 30%와 β -TCP(베타-삼인산 칼슘) 70%로 구성된 합성골 이식재로 뛰어난 골전도성을 자랑한다. 또한 3차원으로 연결된 기공 구조로 이식



후 주위 골조직과 결합해 견고한 신생골 형성이 가능하다.

스트라우만 제노는 돼지 뼈 소재의 이종골 이식재로 뛰어난 골전도성을 자랑한다. 또한 Micro, Nano 단위의 기공이 많아 골세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람의 뼈와 유사한 칼슘/인 비율(Ca/P 1.66~1.71)이 세포의 접착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 고온열처리로 감염 위험성도 원천 제거했다.

스트라우만 코리아 측은 "스트라우만 신세틱과 제노는 이미 수많은 임상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 결과를 입증한 이식재"라며 "일반적인 골이식술부터 난이도가 있는 수술까지 스트라우만 골이식재가 다양한 케이스에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시은 기자 sion@dailydental.co.kr

카카오톡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친구추가 하세요.



무턱-돌출입 증례 치료를 위한 전략

1. MI-LAS 교정치료에의 초대
2. 진단과 치료과정 및 수직교정의 조절
- 3. 무턱-돌출입 증례치료를 위한 전략**
4. class II div.2 증례의 치료
5. 잇몸돌출 증례의 치료 및 메카닉스
6. 재교정치료

골격변화에 따른 상하악전치의 위치변화

성장기 중에 호흡기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하악발육이 나빠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Linder-Aronson은 비인두강의 아데노이드의 크기와 하악의 발육방향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오면서, 아데노이드의 비대가 하악의 발육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 해 왔습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관련된 임상적용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아데노이드의 비대에 의해서 비인두강이 좁아지면, 비호흡이 어려워집니다. 비호흡이 어려워지면, 오랫동안 저작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저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작력이 떨어지면, 하악골의 후방부위의 발육이 나빠지게 되어, 하악골이 후하방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악골의 후하방성장은 상하악전치의 전후방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이에 따른 상하악전치의 저작근관은 하악전치의 전방경사를 커지게 합니다.

돌출입과 무턱증례에서 상하악 전치관계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악전치의 전방경사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로 상하악골격의 균형을 회복하고, 교합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악전치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치료결과를 보면, 상악전치의 후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더라도 거의 상악소구치의 발치만으로 오버젓의 개선을 피하거나, 하악소구치를 발치하더라도, 구치관계의 개선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한 무턱 돌출입 증례의 치료



사진 23. 무턱증례의 초진 얼굴



사진 24 초진 구강사진

이 증례는 매우 심한 돌출입과 무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버젓이 매우 심한데, 상악의 후퇴만으로 안모가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유행하는 양악수술을 해야만 교합과 안모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진 25 초진 세팔로

치료과정

이 증례의 진단과정을 설명하면서 치료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겠지만, 치료전후의 비교 등을 보면서,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치료결과가 얻어졌는지를 이해한 후에, 진단을 설명드리는 것이 LAS의 치료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료과정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정은 항상 anchorage preparation 입니다.



사진 26 고정준비(anchorage preparation)

anchorage preparation을 할 때, 하악소구치를 발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치아이동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단계인 하악견치의 후방이동을 생각하면, 발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 따라서는 class III elastic을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발치와가 함몰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하악견치의 후방이동이 매우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27 하악고정준비 진행중. 발치공극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class III elastic을 열심히 사용해 주면, 발치와는 협착이 일어나지 않고, 사진처럼 두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nchorage preparation이 진행됨에 따라, 발치와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은 하악측방치군이 후방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써, 지난 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공간은 하악전치의 후방직립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상악전치부의 후방견인시에 class II elastic을 더욱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진 28 치료 마무리 단계

사진에서는 견치 견인이라든가 하악전치의 직립 등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디만, 과정은 앞의 연재에서 보여 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종료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 29 종료 구강사진



사진 30 종료 얼굴사진



사진 31 종료 세팔로

치료전후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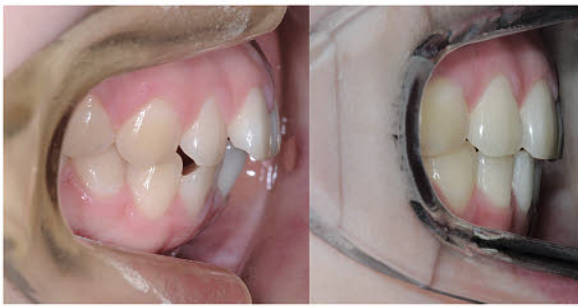


사진 32 치료전후 오버벳 비교

이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악전치의 상태입니다. 치료전에는 심한 전방경사를 보이고 있지만, 치료후에는 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모의 개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긴밀한 교합을 위해서는 상하악전치의 교합상태가 직립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LAS의 치료목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악전치의 위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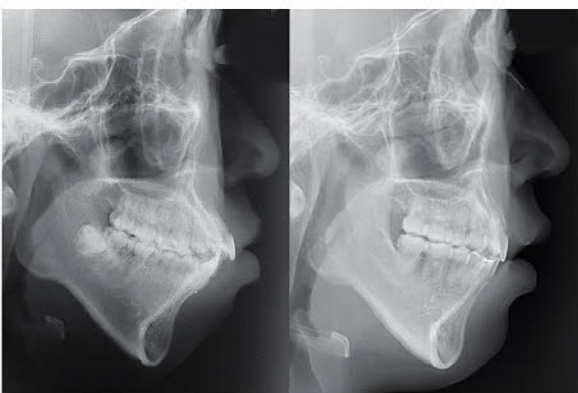


사진 33 치료전후 세팔로 비교

치료전후의 골격의 변화 및 상하악전치의 치축의 변화를 살펴 봅니다.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악전치의 직립이 크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하악의 전상방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34 치료전후의 하악측방치군의 수직고경의 비교'

이 사진은 치료전후의 세팔로를 중첩하여 하악측방치군만을 비교한 것입니다. 치료전후의 하악측방치군의 상태를 보면, 치료후의 대구치가 하방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직고경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로 인해서 하악의 전상방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 35 치료전후 측모 겹침

치료후의 입언저리의 상태가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무턱환자의 안모개선을 위해서는

- 1) 하악의 전상방회전
 - 2) 하악전치의 직립
 - 3) 상하악간의 전후방 편차의 감소
- 이 세가지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악전치 직립과 하악측방치군의 수직고경의 감소의 중요성

무턱환자의 안모개선을 위해서 3가지 요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악전치의 직립과 하악측방치군의 수직고경의 감소입니다.

이 두가지 요소는 상하악간의 전후방 편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LAS 진단에서 치료목표를 설정할 때, chevron에서 제일 처음 정하는 것이 ANB의 목표입니다. 즉, 상하악간의 전후방 편차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악전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로 설정된 ANB 각도에 적합한 하악전치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상하악간의 전후방적인 관계에 조화될 수 있는 하악전치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교합은 물론이지만, 안모의 조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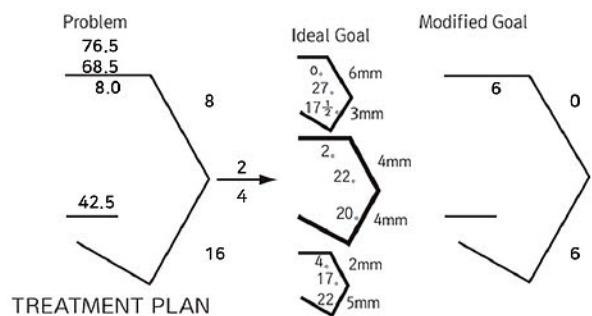


사진 36 치료계획 chevron

환자의 세팔로와 치열모형의 계측치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서, 치료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상하악의 전후방적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하악각이 지나치게 커서, 수술이 적절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교정치료만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여, 최대한의 목표설정으로서 ANB각을 2도 감소시키고, 하악전치를 10mm 직립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ANB 각도를 감소시키는데 상악의 후퇴가 필요하지만, 하악의 전상방회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악측방치군의 수직고경 감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CHARTING THE ANCHORAGE PROBLEM		+	-
1. Depth of curve of Spee in mm (-)			2
2. MM discrepancy (-) or space (+) in lower arch			4
3. MM to upright 1° SUBTRACT GOAL FROM PROBLEM AND MULTIPLY X 2			20
4. Add Line 2 and Line 3. Divide by 6 for molar anchorage loss while retracting 3 5 (-)			3
5. ANB change: 1 mm per degree for regular anchorage (-) 1 mm per degree for major anchorage (-)			2
6. Mandibular plane 8, high (-1), 8, low (+1). (Now see directions A)			4
7. Use palate bar. (+1) if used at least one year.			
8. Delay extraction of 4 until ready to retract upper anteriors (+1)			
9. Extraction Values (See "Directions B")		15	3
10. See "Directions C"	TOTAL	15	38
11. See "Directions D"	NET		23
12. Use Class III elastics. (+1) per month for number of months NET figure is negative. (See note 1 below)		9	
13. Use high pull headgear. (+1) per six months of 10-12 hours daily wear. (See chapter on headgear) Number 12 plus Number 13 should equal NET.			

사진 37 anchorage problem chart

치료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검토해 봅니다. 이 환자는 anchorage 문제가 매우 커서, 설정된 그대로는 설정된 목표도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임플란트를 추가함으로써 목표도달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은 부분은, 마이크로 임플란트를 사용함으로써 보충이 되는 anchorage로,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간단해지게 됩니다.

class III elastic을 9개월 사용함으로써 목표도달이 가능합니다.

	lower		upper	
anchor prep.	9			
canine retraction	10		leveling (10 mos)	
lower upright	6		#13-23 retraction	10
finish	4			
			33 + alpha	

사진 38 time chart

전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nchorage preparation 으로부터 시작하여 마무리까지 3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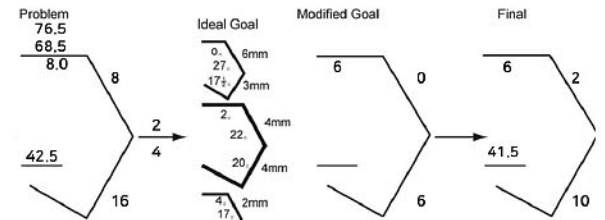


사진 39 치료후 평가

치료목표가 도달이 되었는가를 chevron을 통하여 평가해 봅니다.

상하악전치의 후퇴량이 소량 부족하지만, ANB의 감소 및 하악각의 감소는 목표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성진 명예회장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일본 오사카치과대학 교정학강좌 졸업
- Tweed International Foundation 수료
- 한국임상치과교정의사회 회장 역임
- 한국LAS 교정연구회 명예회장



굿잡 KDA는 구인광고에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굿잡 KDA에 게재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구인광고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유됩니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코디네이터 여러분
구인·구직이 필요할 땐 굿잡 KD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치과의사 구인/구직은 굿잡KDA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운영하는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
굿잡 KDA

-
goodjob.kda.or.kr





수면장애 치료 최신지견 펼쳐다

치과수면학회, 대한수면학회 학술대회 참가
6명의 연자 열정강연...수면의학 핵심 되짚어

대한치과수면학회(회장 정진우)가 대한수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면장애 환자 치료에 관한 최신 학술 지견을 펼쳤다. 대한치과수면학회가 지난 7일부터 8일 양일간 대한수면학회가 주최하는 '2019년 제14회 대한수면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치과수면학회는 수면의학과 환자치료에서 치과분야의 중요 역할과 연구들을 소개했으며,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당분야 치료에 대한 경험, 임상 지식, 연구들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학회에서는 치과분야에서 Special Interest Group으로 세션을 따로 운영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저 Special Interest Group 세션에서는 최재갑 교수(경북대 구강내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연희 교수(경희대 구강내과)가 'Outcome prediction through PSG data'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임현대 교수(원광대 구강내과)가 'Outcome prediction through imaging study'를, 장지희 교수(서울대 구강내과)가 'Other predictors'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밖에도 수면장애 환자의 치과적 치료 접근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가 공개됐다. 권용대 교수(경희대 구강외과)가 'Maxillo-mandibular advancement



대한치과수면학회가 지난 7일부터 8일 양일간 대한수면학회가 주최하는 '2019년 제14회 대한수면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했다.



surgery' 강의를, 김혜경 교수(단국대 구강내과)가 'Oral examination for oral appliance'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아울러 김성택 교수(연세대 구강내과)가 좌장을 맡은 'Management of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OSA' 세션에서는 김경아 교수(경희대 교정과)의 'Oral appliance in mild to moderate OSA' 강연이 펼쳐졌다.

대한치과수면학회 관계자는 "수면다원검사와 양압치료를 보험화로 인해 수면질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수면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본 학회는 제14회 대한수면학회에 참가, 수면의학의 최신지견이나 중요 포인트들을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턱관절·저작근 질환 치료 기법 공유

구강통증 환자 임상경험 노하우 전달
구강내과학회 전문학술대회 개최 성황

구강통증 진단 및 치료에 관심이 많은 개원가들을 위한 전문학술대회가 열렸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이하 구강내과학회)가 '구강내과·구강악안면외과 대표 질환의 감별진단 및 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지난 12월 1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전문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문의를 준비하는 전공의들과 구강내과 전문의, 인정

의가 7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강의와 더불어 많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용우 교수(부산치대 구강내과)가 좌장을 맡아 턱관절 질환과 저작근 질환을 주제로 강연을 소개했다. 아울러 조수현 원장(특편한 치과)이 '턱관절 질환의 감별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저작근 질환의 감별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이상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가 지난 12월 1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전문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구 원장(서울메이치과)이 저작근 질환 진단 기법을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강암과 구강 감염을 주제로 송윤현 원장(아림치과병원)이 좌장을 맡아 강연을 이끌어갔다. 더불어 박주용 교수(국립암센터 구

강종양클리닉)가 '구강암의 진단 및 치료'를, 박홍주 교수(전남대 구강악안면외과)가 '구강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감염'을 주제로 진단 및 치료 기법에 관해 자세히 강의했다.

구강내과학회 관계자는 "구강내과와 구강외과의 콜라보 강의로 진행된 이번 전문학술대회는 매년 12월 첫 주에 개최해 전공의 외 전문의, 인정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회를 주제로 학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면통증구강내과 전공에 대한 임상적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www.drphotos.co.kr

DSLR 덴탈솔루션

구성품목(Camfi 별도)
Nikon 바디 + AF-S 85mm + 디알디퓨저 + 약세사리(가방, UV필터, SD 16GB, 리더기 등)

(추천) D5600 기본패키지 **150만원** (부가세포함)

D5600 교정패키지 **99만원** (AF-P 18-55mm 렌즈로 교체) (부가세포함)

디알포토스에서 구매하신 제품에 대해서는 AS대행과 대체장비 제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디퓨저 단품은 **진덴탈**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CamFi 출장설치 45만원

☎ 070-4644-8900

“사랑니가 아프니” 개원가 발치 노하우 대전수안면외과학회 영남권 1차 사랑니 학술집담회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영남권 사랑니 학술집담회
발치전 고려사항부터 보험청구까지 완벽정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영남권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사랑니 치료 노하우를 공유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지난 7일 영남권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제1차 사랑니 학술집담회를 부산 센텀시티 디오임플란트 본관 7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됐으며,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거제와 울산 등에서도 영남권 치과의사 및 스탭들이 참석,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치과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랑니 진단은 물론 치료계획과 방법, 약물처방, 보험청구 등 전반적인 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주요 연자 및 연제로는 ▲사랑니 발치전 고려사항 : 전신질환 및 항응고제 복용환자-김정환교수(동아대) ▲사랑니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학술집담회를 열고 영남권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사랑니 치료 노하우를 지난 7일 공유했다.

쉽게 발치하기-윤상용 원장(바른플란트 치과의원) ▲사랑니 발치 시 약물치료-황대석 교수(부산치대) ▲사랑니 발치 시 보험청구-최근락 원장(첫사랑니치과

의원)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영남권 1차 사랑니 학술집담회는 상대종합상사와 큐어시스가 후원했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바로가이드 태국서 각광

임상증례로 우수성 확인

(주)네오바이오텍(대표이사 허영구·이하 네오)이 태국에서 열린 'Bangkok International Symposium of Implant Dentistry 2019' (이하 BIS2019)에 참가해 한국의 임플란트 기술풍을 선보였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 사흘 간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각국의 치과의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BIS2019는 'The Conquest of Implant Complications'를 주제로 임플란트 합병증 솔루션과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강연은 물론 전시 현장에는 50개 이상의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가 참가해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네오는 임플란트, 장비와 더불어 올해 출시한 디지털 가이드인 신제품 VARO Guide(이하 바로가이드)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네오가 태국에서 열린 BIS2019에 참석, 다양한 임상 노하우를 전달했다.

허영구 원장은 이튿날 연자로 나서 'Contemporary treatment options for various peri-implant complications'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Complication에 대한 솔루션으로 바로가이드를 소개했다.

아울러 임상 사례로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네오바이오텍 월드 심포지엄' 현장에서 펼쳐진 'Self Live Surgery' 임상 사례를 들어 바로가이드를 효용성을 소개했다.

김용재 기자 kyj45@dailydental.co.kr

내년 10월, 아시아 심미치과학회 홍보 박차

심미치과학회, 항저우·도쿄 홍보활동

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김기성·이하 심미학회)가 아시아심미치과학회와 공동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 홍보를 위해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심미치과학회-아시아심미치과학회 공동학술대회는 오는 2020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심미학회는 항저우와 도쿄를 방문해 홍보하고 각국 치과계 인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항저우에서 열린 제 6회 중화심미치과학회(Chinese Academy of Esthetic Dentistry·이하 CAED)에는 김현중 심미학회 이사가 참석해 다가올 학술대회를 홍보했다.

이에 Liu Weikai 교수(CAED 회장)가 적극 참여를 약속해 양국 간 공고한 교류 관계를 방증했다.



대한심미치과학회 김기성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내년 10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심미치과학회 학술대회 홍보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했다.

또한 심미학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일본 도쿄 소와대학교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 30회 일본심미치과학회(Japanese Academy of Esthetic Dentistry)에 참석했다. 위 행사엔 심미학회의 김기성 회장, 임영준 고문, 이동운 이사가 참석했다. 또한 김명진 고문이 아시아심미치과학회 회장 자격으로 함께해 내년 개최될 행사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SDI 식약처, 치과용아말감사용되는수은저감화추진!
"2020년1월1일부터캡슐형치과용아말감만사용가능"

캡슐형 아말감 2019년

마지막 특가할인 이벤트



아말감메타기 (GI경용)
₩350,000
제조: 뉴질랜드

+



SDI 캡슐 1R+2R
₩77,000+102,500

₩450,000

아말감메타기 구매조건

캡슐형 아말감 2봉구매시
₩450,000

아말감메타기 무상증정조건

Ultracaps+ 1R 8봉(400캡슐)
Ultracaps+ 2R 2봉 (100캡슐)
₩821,000

제품비교군	합금(파우더) 구성비	수은 함량
Ultracaps+	은 50% 주석30% 구리20%	46.8%
기존타제품	은 40% 주석31.3% 구리28.37%	47.9%

[치과의원 보험청구] 1R L7233061 ⇒ 1,540원 / 2R L7233060 ⇒ 2,050원 기존제품 보험청구 불가

DAE MYUNG 대명실업 (주)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72-5 대명빌딩 2층 TEL.(02)702-3001 HP.010-7263-3131 FAX.(02)716-1581



아주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선명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십시오



[Orthophos SL 3D]

Image

DCS(Direct Conversion Sensor)의 선명한 이미지와 저선량 촬영모드로 최소한의 블러링

Quality

Made in Germany의 견고한 내구성과 5년 warranty(센서, 튜브 헤드) 제공으로 안정적인 장기 사용 가능

Integrated solution

CAD/CAM 시스템과의 통합 솔루션으로 편리한 Implant Surgical guide planning이 가능한 CEREC guide 2 system 제공



제품 문의) 02.2008.7685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문의해주세요.

보철 치료 백미 “여기있소”

이보클라 비바덴트 심포지엄

성황

디지털 임플란트·덴처 최신지견
자사 BPS 장점 소개...250명참석

점차 디지털화 돼가는 치과 보철치료의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는 강연에 개원가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보클라 비바덴트가 주최한 ‘제6회 이보클라 비바덴트 심포지엄’이 지난 1일 (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강당에서 250여 명의 치과의사, 치과기사 대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기반한 진료와 수복물 제작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변해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다뤘다.

직접 수복과 고정성 보철, 가철성

보철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들로 전세계의 치과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보클라 비바덴트는 각 분야의 명연자들과 함께 고정성 보철과 가철성 보철 분야의 변화양상과 미래를 제시했다.

정현준 원장(연세힐치과의원)과 박경식 소장(네츄럴라인치과기공소)이 ‘Esthetic Implant Dentistry: 디지털의 미래, 아날로그의 반격’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심미 임플란트 보철의 미래를 제시했다.

또 신준혁 원장(디지털아트치과의원)이 ‘Digital Art: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 이훈재 원장(이다듬치과의원)이 ‘디지털 덴처,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후에는 이정진 교수(전북치대 보철



‘제6회 이보클라 비바덴트 심포지엄’이 지난 1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과)가 디지털 덴처의 전반적인 기술 흐름과 임상에 대해 설명하고, 박지만 교수(연세치대 보철과)가 디지털 시대의 덴처 제작을 다뤘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BPS 국제 인스트럭터인 Ivoclar Vivadent AG의 Dr. Frank Zimmerling 와 DT. Mattheus Boxhoorn가 ‘BPS Going Digital’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보클라 비바덴트의 생체기능적 보철시스템 BPS의

장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보클라 비바덴트 측은 “다양한 제품과 시스템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개원가 보철의 미래를 계속해 제시해 갈 것”이라며 “계속적인 학술프로그램의 디지털 보철 트렌드를 주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보클라 비바덴트의 내년도 심포지엄은 2020년 11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적극적 예방진료가 동네치과 미래’

치과 바로 적용 프로토콜 제시, 낮은 수익성 고정관념 깨

박창진 원장 APEM 세미나 성료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의원)이 진행한 제31차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 세미나가 지난 1일 서울 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예방치료를 임상에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창진 원장은 꾸준한 연구와 오랜 임상경험을 토대로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정립했으며, 이를 APEM 세미나를 통해

개원가에 공유하고 있다. 현재 많은 치과에서 APEM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적극적 환자관리 프로토콜’이라는 주제로 치과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공유했다.

세부적으로는 ‘행복한 환자와 함께 하는 윤리적 수입증대’를 주제로 ▲‘환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예방치료 ▲환자가 원하는 상담이란? ▲치아가 아닌 환자를 보는 진단적 접근법 등을 강의내용으로 다루며 환자와 신뢰관계를 쌓아가



박창진 원장이 진행한 제31차 APEM 세미나가 지난 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렸다.

는 상담방법과 환자를 바라보는 진단적 접근법을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이와 더불어 ▲파괴된 치아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적극적 예방치료 ▲올바른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의 교육 ▲바로 임상적용 가능한 적극적 환자 관리 프로토콜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도 제시했다.

또 정기검진을 비롯한 예방치료의 수익성을 살펴보고, 예방치료는 수익성이 낮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주기도 했다.

박창진 원장은 “APEM 세미나를 계속해 진행하며, 예방진료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속해 개원가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자문위원	강구한	부회장	강규석	국제이사	박형수	감사	이성출
자문위원	이선국	부회장	김낙현	법제이사	허정무	서울지부장	강규석
자문위원	한광수	부회장	김재구	정보통신	이유진	부산지부장	한휘철
자문위원	박창석	총무이사	이노범	편집이사	김보경	경남지부장	백승동
자문위원	김정우	재무이사	김재구	공보이사	김효은	대구지부장	정성호
자문위원	성재현	학술이사	한상봉	이사	이지민	광주지부장	김낙현
명예회장	최종석	사업이사	류동범	이사	홍성대	대전지부장	홍수정
회장	장순희	후생이사	윤순옥	감사	이상필	강릉지부장	김재구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

덴티스, DWS2019 성황

치주, 임플란트 치료 전 분야 강연 총망라 스페인서 차별화된 임상 테크닉 선보여

(주)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이하 덴티스)가 다양한 임상 노하우를 담아낸 강연으로 국제 위상을 드높였다.

덴티스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덴티스 월드 심포지엄(DWS2019)'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 세계 600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외 임상가 및 연자들의 주제별 강의 및 핸드온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메인 연자로 나선 김재윤, 전인성, 장원건 원장은 워크샵 프로그램에서 차별화된 임상 테크닉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먼저 김재윤 원장은 이번 강연에서 'Solution of Implant Surgery on

Severe Bone Atrophy Area'를 주제로 극심한 골수축(퇴축) 부위의 임플란트 수술 솔루션을 소개했다. 특히, GBR과 치조골 확장술을 치료방법으로 제시하며 각 술식에 대한 자신만의 임상팁을 공개하고 성공적인 치료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장원건 원장이 'Keys to Excellent Functional Occlusion in Implant Dentistry'를 주제로 임플란트 치의학에서 교합기능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핵심적인 임상팁을 공개했으며, 전인성 원장이 'A Novel Guideline of Sinus Membrane Perforation Repairing and Its Predictability'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더불어 GDIA(글로벌 덴탈 임플란



(주)덴티스가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덴티스 월드 심포지엄(DWS2019)'을 성황리에 마쳤다.

트 아카데미·덴티스)의 리더로 알려진 Dr. Jin Kim & Dr. Tony Daher가 연자로 나서 'Ask the Experts' Forum'을 주제로 치주학과 보철학 전반에 대해 강연했다. 또 GDIA 프로그램과 FAQ를 핵심 정리, 실전적인 임상정보와 팁을 공유했다.

덴티스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임

플란트 치료를 위한 치주, 보철, 심미,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와 술식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며 "11명의 연자들과 600여 명의 전 세계 치과의사들의 공감·소통이 두드러졌으며, 강의뿐만 아니라 전시와 이벤트 등 부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Why?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 1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 2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시점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3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 4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 5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 6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 7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 8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 9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 10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대한민국 **대한 전문신문협회**

치의신보 창간 53주년을 축하합니다

감	감	대	채	I	공	사	교	총	부	이
사	사	표	권	T	제	업	육	무	이	사
박	강	감	관	담	담	이	홍	이	사	장
석	총	사	리	당	당	사	보	사	장	장
현	규	사	이	이	이	사	이	오	백	정
		최	사	사	사	한	장	병	명	관
		호	신	서	김	정	희	훈	환	서
		근	화	왕	우	우	수			
		신	섭	연	영					

학술행사 일정표

목
12/19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02-740-8603
임상치의학(제20기 임플란트) 연수과정

● IBS Implant -광주치협 / 062-432-7528
M/C 로 임플란트의 전문가 되는법

토
12/21

● 고려대 안암병원 치과 - 고려대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 / 02-920-5358
2019 고려대 임플란트 심포지움

● 한국성인치교정연구회 - 광명데이콤 12층 소강당 / 02-442-3735
황현식 교수의 TTM 최신 임상교정 연수회

● 한국능률협회 - 서울 / 02-3274-9369
Harvard Executive Dental Education - Literature, Arts and Dentistry

●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제18회 교정 아카데미(실전Basic+ Course)

● IBS Implant - 구로 / 02-466-9117
발치와 즉시 식립 및 경사진 치조골에서 flapless 수술법

● 가남오스콤 - 메가젠타워 2층 세미나실 / 010-9215-6037
O&I 교정스터디그룹 BASIC COURSE

● SS임상치과연수회 - 더모임 아이인비즈 / 010-7736-3019
제 3회 쓱쓱 발치 연수회

●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승산강의실 / 02-764-9210
2019 학술집담회

● 교정진담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강당
치아교정을 이용한 거미스마일치료

● IBS Implant -대전서구 민승기브리라인치과 / 042-719-7970
Min. Live Show 11회차 - 쉽고 편해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일
12/22

● 대구강보건협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대강당 / 02-753-7123~4
종합학술대회

● CAD/CAM Master Class + Implant Master Class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
Implant & CAD/CAM Master Class Symposium 2019

● 대한턱관절학회,대한턱관절학회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지하층 강당,구강악안면외과 외래 / 02-958-9440,02-950-1161
추계학술대회 및 제 43회 연수회

● 웃는얼굴치과 -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컨벤션 스타룸 / 010-3407-2879
의식하 진정 치과 진료

● (주)힐렌스 - 서울 성수동 세미나실 / 1566-7328
최신 치과트렌드와 디지털 치과 만들기

목
12/26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02-740-8603
임상치의학(제20기 임플란트) 연수과정

금
12/27

● 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제28기 Orthodontic Seminar

토
12/28

●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제18회 교정 아카데미(실전Basic+ Course)

●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양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한맥치과임상연구회 16기

일
12/29

● 시스루테크 - 아르누보 호텔(역삼) 3F / 010-5235-4781
Cross bite(전치,구치) 구치 후방이동은 시스루얼라이너

● (주)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 세미나실 / 010-5009-3651
완전 의치 세미나

목
1/2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02-740-8603
임상치의학(제20기 임플란트) 연수과정

● (주)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 세미나실 / 010-5009-3651
교정과 임플란트 교합 세미나

토
1/4

● 가남오스콤 - 메가젠타워 2층 세미나실 / 010-9215-6037
O&I 교정스터디그룹 BASIC COURSE

● IBS Implant - 군산 / 063-229-7024
매직코어 정기 세미나

● 3D ONS - 서울 강남 쓰리디오엔에스 4층 세미나실 / 02-511-8179
ON3D Workshop



경험해 볼수록 느껴지는 가치,
신뢰할 수 있는 당신의 진료 파트너

INTEGO

Ergonomic Design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으로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편안한 진료 공간 제공

Comfort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진료 환경 제공

Quality

안정적인 A/S 관리와 서비스로
새 제품과 같은 퀄리티 유지



제품 문의) 02.2008.7685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문의해주세요.

THE DENTAL
SOLUTIONS
COMPANY™

 **Dentsply
Sirona**

학술행사 일정표

일
1/5

-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 COEX B1 Hall 1F / 02-6352-2544
2020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 (Dentex 2020)
- 한국능률협회 - 서울 / 02-3274-9369
Harvard Executive Dental Education - Art and Essence of Business Management

- 덴탈스쿨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층 승산강의실 / 010-4512-1828
치과성공전략 - 이것이 김영삼 원장의 노하우
- 미소지음치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미소지음치과 / 010-2201-2894(문자메세지)
48차 크레스탈어프로치 최신지견

수
1/8

- 신원덴탈 - 신원덴탈 세미나실 / 1577-0023
Preclinic Hands on - 근관성형 "HyFlex EDM & CM with Apical Judgment Procedure"

목
1/9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 02-740-8603
임상치의학(제20기 임플란트) 연수과정

- (주)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 세미나실 / 010-5009-3651
교정과 임플란트 교합 세미나

금
1/10

- SyL교정연구회 - 분당 SyL세미나실 / 031-786-1188
제28기 Orthodontic Seminar

토
1/11

- 오스템임플란트 - 가산 AIC 연수센터 / 070-4626-0778
MASTER COURSE IN SEOUL - BASIC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기본 과정
- STM교정치과그룹 - 강변 STM치과 / 02-3437-5600
제18회 교정 아카데미(실전Basic+ Course)
- 한맥치과임상연구회 - 부산 중앙동 한맥치과임상연구회 세미나실 / 052-260-2879
한맥치과임상연구회 16기
- 얼굴치과Club - 아름다운얼굴치과 / 010-2924-8275
cosmetic Basic course
- 신흥 - 서울 신흥연수센터/신흥양지연수원 / 080-819-2261
신흥 A.T.C Basic & LiveSurgery 연수회
- (주)신흥 - 서울 신흥연수센터 / 1544-2809, 080-840-2875
신규 개원의를 위한 덴트웍 핸드온 세미나

- IBS Implant - 수원 / 031-238-2879
매지코어 신규 세미나 기본개념 및 발치즉시 임플란트
- IBS Implant - 구로 / 02-466-9117
발치와 즉시 식립 및 경사진 치조골에서 flapless 수술법
- IBS Implant - 광주치협 / 062-432-7528
성공적인 하지만 쉽게 접근하는 발치즉시 임플란트
- 오스템임플란트 - 오스템 AIC 연수센터(부산) / 070-4345-7501
Master Course(송동석원장)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층 승산강의실(제강의실) / 02-742-2884
2020 MID WINTER FOCUS MEETING



3M Science.
Applied to Life.™



RelyX™ Luting 2
RMGI Cement

시멘테이션, 참 쉽다. Tack-cure는 더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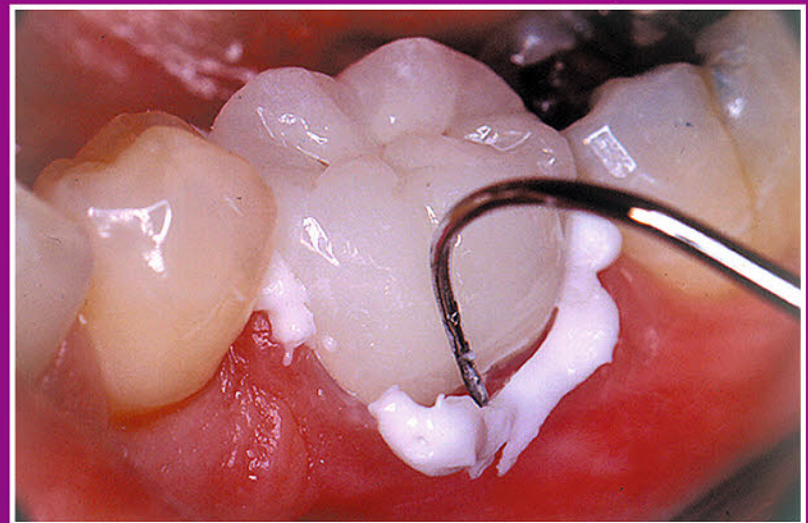


다음의 보철물에 추천합니다.

메탈 혹은 PFM 수복물, 지르코니아,
소아용 크라운, 임플란트 등

2019 Dental Advisor에서 다시 한 번 인정된 RMGI 시멘트

- ▶5초간의 Tack-cure 로 더 쉽게 잉여시멘트를 제거
- ▶지르코니아 시멘테이션 가능
- ▶소아용 크라운 수복에 적합
- ▶지속적인 불소 방출
- ▶최소의 수술민감증



RelyX™ Luting 2 Tack-cure 기능을 활용한 잉여시멘트 제거

한국쓰리엠주식회사

치과제품사업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19층
TEL : 02)3771-4128
<http://go.3m.com/dental>

DENTAL 114

광고문의

· 담당자 : 황윤영 · TEL : 02-2024-9282 · FAX : 02-468-4653
 · E-mail : yoon02cap@naver.com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87-001101 (예금주:대한치과의사협회)

*광고사이즈가격 ◆ 4.4×4.0=4만원 ◆ 4.5×8=8만원 ◆ 9.3×8.2=14만원

치과양도

경북 구미시 선산읍터마널 시장입구2층
 인테리어 유니트케어 1년사용
 시설장비3000 분할조정가능
 보증금1000 / 월80만원

010-8560-4608
010-7447-1381

병·의원 전문직 대출

- ★ 신용 - 병의원금 8억이상 (3.1%~)
- ★ 병원기술평가 - 신용한도 증액
- ★ 클라우드 펀딩 자금 진행가능 (7.3%~)
- ★ 담보 - 후순위 105%까지 (6.2%~)
- ★ 개원예정의 자금 컨설팅

DoctorNcube 김광식 이사
010-4552-1057

삼성생명 "파격" 대출

- *개원 의사 예정의 봉직의-신용담보, 요양급여, 신용보증기금 10억이상
- *신용, 매출, 소득에 따라 차등 가조회 조회기록 안남음
- *보험가입 없음, 취급 수수료 없음
- 파산, 회생하신분도 가능

김수경 (since 1996)
011-234-6877

치과의사 신용 대출

제1금융권 최고12억

- ▶개원/예정/봉직의 전문
- ▶무보증/무담보/추가대출
- ▶전문컨설턴트 전국 방문
- ▶안전하게 자금 조달/운영
- ▶2금융권 긴급 자금 운영
- ▶최고의 금융 노하우
- ▶신용등급 상향 관리

(주)KnH메디텍
02)597-6863

광·고·문·의

치의신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TEL 02)2024-9200
 02)2024-9282 (DENTAL 114 전용)
 FAX 02)468-4653
 E-mail : kdapr@naver.com

광고료 수납 :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5-887-001101
 예금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초빙 양도 기타

치의신보

빠른소식, 풍성한 입을거리
 필요한 치과 정보, 치과의사 독자분들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www.dailydental.co.kr

치의신보

1966년 12월 15일 창간

발행인 김철수 · 편집인 정영복 <http://www.dailydental.co.kr>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3층 치의신보

광고접수 02)2024-9290 e-mail : kdapr@naver.com

치의신보	02)2024-9200	협회 사무처	02)2024-9100
편 집 국	02)2024-9210	총무국	9110 재무팀 9120
구인광고	02)2024-9280	정책 1국	9130 정책 2국 9180
주소이전	02)2024-9114	사업국	9140 학술국 9150
F A X	02)468-4653	수련교시국	9155 보험국 9160
e-mail	kdanews@chol.com	홍보국	9170

韓國專門新聞協會 會員社 등록번호:서울대07185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행

지르코니아 보철에 잘 찍히는 교합지

레이더 필름 SWISS + MADE

블루/레드 양면 비닐 정밀 교합지

할인행사

~~2통 68,000원~~

50,000원

행사기간 : ~12월 31일까지

판매가 : 34,000원 (300매/통) 제조원 : NORDIN / 스위스

좋은회사 (주) 프로덴티 02.365.0750 | 판매원 전국치과재료상

www.hi.co.kr

치과 의료분쟁!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이 함께합니다.



■ 치과의사와 치과병원을 위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치과 시술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부작용)을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으로 제기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초과한 부분만 보상됩니다.

■ 합의 및 소송 업무 대행으로 든든하게!

현대해상의 보상 전문 조직이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시 보험사의 보상책임 부담한도 내에서 합의 및 소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려면

MPS로 연락주시면 단체계약을 통해 개별 가입 시 보다 저렴해진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배상청구기준증권)

1.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사고가 발생한 의료행위를 한 시점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1과 2사이에 보험이 갱신일자에 맞추어 누락없이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4.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

※ 부득이한 경우(유학, 폐업 등)로 인하여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보험 만료일 이후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택 보고연장 담보기간 특약을 시행중임



손해분담 특별약관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예정된 보험금에서 미리 약정한 일정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든든한 병원 경영을 위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가입문의 현대해상 의료배상센터 엠피에스(대리점등록번호 : 2005071148) Tel) 02-762-1870 / Fax) 02-762-3340, 3364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보험은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1954호(2018.3.19)

H 현대해상화재보험

SUNSTAR

JDR (Journal of Dental Research) 논문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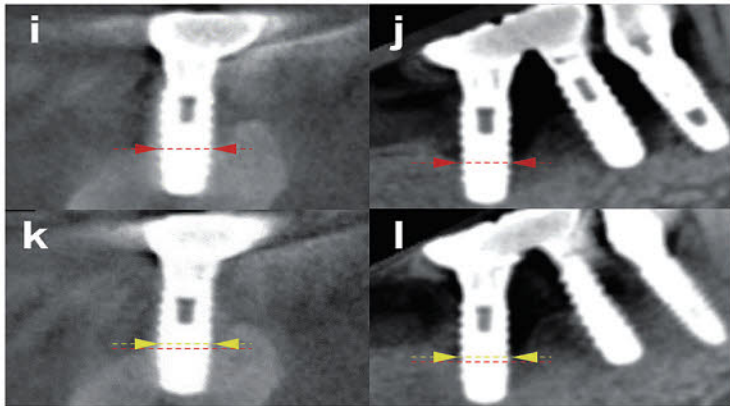


페리오클린® 치과용 연고의 임상연구
임플란트주위염(Peri-implantitis)에 국소항생제인
페리오클린®치과용연고를 적용한 수술요법:
6개월간 무작위 비교임상연구

Journal of Dental Research
 김창성교수 | 이종석교수 | 차재국교수
 1-8© International & American Associations for Dental Research 2019
 Article reuse guidelines: sagepub.com/journals-permissions
 DOI: 10.1177/0022034518818479 journals.sagepub.com/home/jdr
 Article first published online: January 9, 2019 Issue published: March 1, 2019
 Journal of Dental Research 2019, Vol. 98(3) 288-295

주요결과 1 (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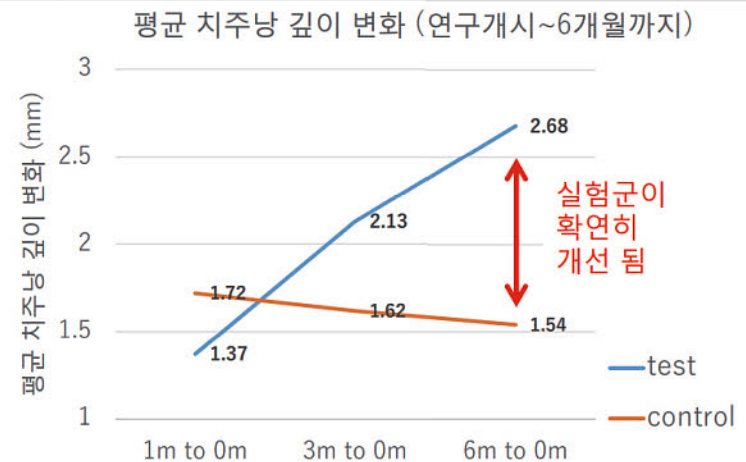
임플란트주위염 수술 + 페리오클린®치과용연고 임플란트주위염 (peri-implantitis) 환자의 뼈(bone)가 평균 0.72mm 증가



수술전 콘빔형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BCT)이미지(i,j)와 6개월 후 콘빔형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BCT)이미지(k,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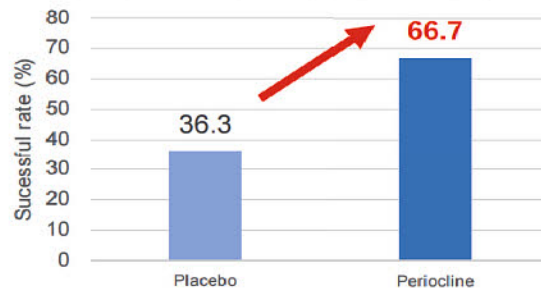
주요결과 2 (치주낭 깊이 감소)

임플란트주위염 수술 + 페리오클린®치과용연고 6개월 후 치주낭 깊이 감소의 변화는 평균 2.68mm 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확연히 좋아졌음을 확인



임플란트주위염 수술 성공률

(탐침 후 출혈 (BOP), 치주낭 깊이 감소, 그리고 추가적인 골 소실이 없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주요결과 3 (수술 성공률 증대)

수술 성공률을 증가시킴:
 페리오클린 사용군 (66.7%) > 위약 사용군 (36.3%)
 (오른쪽 그래프 참조)



PERIOCLINE®

페리오클린® 치과용 연고
 주 1회 주입으로 168시간 약효 지속

전문의약품
 분류번호 : 615

제품문의 **W** 바이머파마저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11층(삼성동, 찬이빌딩)
 T. 02.469.3205 / 02.498.9780
www.sunstargum.co.kr